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RISK GUARANTE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57호

Monday, March 4, 2024 A

3개주 경선 또 싹쓸이... 미주리에선 득표율 100%

(미주리·아이다호·미시간)

트럼프 대의원 총 244명 확보
내일 16곳서 ‘수퍼화요일’ 경선
도전자 헤일리, 사퇴 가능성 커져



캘리포니아 등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수퍼 화요일’을 사흘 앞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연전연승 기록이 이어졌다. 2일 미주리·아이다호·미시간 세 곳에서 열린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내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완승을 거뒀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오는 5일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르는 ‘수퍼 화요일’까지는 경선 레이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선 ‘경쟁력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걸어 거취와 관련해 여론을 낚았다.



퍼 화요일을 고비로 조기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미주리주 각지에서 열린 공화당 코커스에서 득표율 100%를 기록해 미주리주에 배정된 당 대의원 54명 중 51명을 쓸어갔다. 아이다호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율 70% 기준 84.6%

의 득표율을 기록해 13.5%에 그친 헤일리 전 주지사에게 큰 차이로 승리했다. 아이다호에 할당된 당 대의원 3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차지했다.

미시간 코커스 역시 개표율 99%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 97.8%의 몰표를 받아 2.2%에 그친 헤일리 전 주지사에게 싱거운 승리를 거둬 미시간 코커스에 배정된 당 대의원 39명에

‘독식’했다.

미시간주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 방식의 경선을 혼용하는데, 지난달 27일 열린 미시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주지사가 각각 68.1%, 28.6%의 득표율을 기록해 득표율 비례 배분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각각 12명, 4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1월 아이오와·뉴햄프셔 경선, 2월 네바다·버지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포함해 이날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4명의 공화당 대의원을 가져갔다. 헤일리 전 주지사가 확보한 당 대의원 수는 24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버러 유세에서 “11월 5일 대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나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백악관에서 나가라. 당신은 해고’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3번 ‘트럼프’로 이어집니다

“경기호전” 인식 늘어도 혜택 못 받는 바이든

유권자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우호적인 표심으로 는 좀처럼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년간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경제 인식 변화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표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양자 대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은 바이든 대통령(4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때 보다 는 격차를 좁히긴 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 호전에 비하면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긍정적인 경기 인식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뚜렷이 이어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 꼽힌다.

▶ 관계기사 6면

의협 “의대증원 저지” 거리로, 정부 “불법행동 처벌” 법대로

수술 연기 등 환자들 피해만 커져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은 전공의 사직이 시작(지난달 19일)된 지 14일째인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켈기대회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계속 비우면 헌법과 법률

이 부여한 정부의 임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시한(지난달 29일)까지 복귀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4일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실제 면허정지로 이어질 경우 전임의(세부 전공 전문의)·교수 이탈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확고하다. 의료계는 백지화로 맞선다. 정부는 여론의 지지와 엄정 대응 원칙을, 의료계는 진료 독점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양새다. 수술 등이 연기된 중증 환자

가슴은 타들어 간다. 간극을 좁히려려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계에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한 발도 못 나갔다. 의료계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개인 의사 중심의 조직이다. 전공의는 2020년 과업 때와 달리 대표 조직이 사실상 없다. 정부의 집단행동 교사 처벌 경고는 강력하다. 의료계는 대표단을 꾸릴 여력이 없는데, 정부는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 15면 ‘의대증원’으로 이어집니다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을 드립니다.

“야당 텃밭… 원희룡 잘못 와”, “바람 불면 이재명도 위험”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스타트

이·원, 정당·교회서 두번 마주쳐
“원희룡 오면 정권서 개발 밀어줄 것”
“여긴 송영길 5선 할 정도로 민주당”

“결국 오셨네요.”(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무슨 말씀이신지, 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일 오전 9시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성당 앞.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얼굴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4·10 총선의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명룡대전(明龍大戰)’의 서막이 올랐다. ‘보수정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을이 무대다. 지난 2월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지역 일정에 나선 이 대표와 2주 넘게 동네를 누빈 원 전 장관이 현장에서 처음 맞닥뜨렸다.

성당에 먼저 도착한 것은 원 전 장관이었다. 오전 8시30분, 남색 코트에 빨간색 목도리 차림의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와 함께 도착했다. 이씨 역시 빨간 목도리와 붉은색 운동화 차림이었다. 이씨는 이 지역 출신이다. 계양을 현역인 이 대표는 오전 8시50분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목도리와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오전 10시 계산제일교회 앞에서도 조우했다. 원 전 장관이 “예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박촌동 성당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의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원회장인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오른쪽)와 함께 인천시 박촌동 성당 앞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시 계산동 계산제일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김정재 기자



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이 대표는 “예”라고 답하며 미소 지었다.

예배를 마친 원 전 장관은 교회 옆 건물로 이동해 교인들과 점심을 함께했지만, 이 대표는 곧장 서울로 이동했다. 오후 2시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비서관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이 남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한 50대 남성은 “본인이 와야지”라며 불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해 지역 선거에 올인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당의 무덤’은 2000년 이후 일곱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빼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해 붙은 별칭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했고 지난 대선도 이재명 후보가 52.2%를 얻어 윤석열 후보(43.6%)를 크게 이겼다. 계양에서 10년 넘게 택시를 몰고 있다는 조용범(65)씨는 “여기는 송영길이 5선 할 정도로 민주당 텃밭이다. 원희룡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년 남성들은 “여기 민주당이여, 잘못 왔어” “김건희 (여사) 조사 안 해”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16~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37~38대 제주지사, 국토부 장관 등의 이력을 앞세워 지역 개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야권 초강세인 계양을 선전이 전체 선거 판도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화전사거리 인근에서 원 전 장관을 바라보던 최영숙(54)씨는 “송영길 씨가 다섯 번이나 하고, 이재명 대표가 와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라며 “국토부 장관도 했던 원희룡 같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 정권 차원에서 개발을 밀어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50대 지역 주민은 “민주당이 한 게 뭐냐. 낡은 동네를 여태 모른 척해 놓고”라며 “바람이 불면 어디로 불어다칠지 몰라. 이재명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일 계양을(선거구 확정 전 지역) 18세 이상 유권

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5.2%,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4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길리서치가 1월 1~2일 인천 계양을 거주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이 대표 50.7%, 원 전 장관 34.3%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천 계양을의 선거구 조정 결과와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출마도 ‘명룡대전’(이재명 vs 원희룡)의 변수다. 지난달 29일 인천 계양갑에 속했던 작전서운동은 계양을에 편입됐다. 작전서운동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1711표 ▶2020년 4월 21대 총선 3851표 차로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이다. 반면에 계양을에서 계양갑으로 바뀐 계산3동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맞붙어 선전한 곳이다. 계산1동과 계산3동의 표차는 각각 122표와 616표에 불과했다. 선거구 조정을 두고 여권은 “이재명을 위한 계(계양) 리벤지”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획정위에서 보냈던 초안 그대로”라고 맞서는 이유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이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점 정도 변수로 거론된다. 인천=유성운·김정재 기자

임종석 만난 이낙연, 출마선언 연기

‘컷오프’ 실현·홍영표와 연대 모색 임, 탈당 후 호남 출마 가능성도

컷오프되거나 탈당한 야권 비명계 인사의 집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일 복수의 민주당 인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설훈·홍영표 의원은 3·1절 연휴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당 안에서 민주당을 재건할 것이냐, 다른 틀을 통해 할 것이냐 각자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탈당 후 ‘민주연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청원·홍사덕 등 14명 당선)나 ‘친박 무소속 연대’(김무성·이진복·한선교 등 12명 당선)가 모델이다. 이에 반응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광주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임 전 실장과 만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제고 요청을 민주당 지도부가 묵살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전남 장흥) 등이 탈당해 호남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28개 지역구 중 23곳에서 승리했다.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53%로 1주일 전(67%)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현석 기자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 ‘젊은 표심’ 쏠릴까

“개혁신당 공약 펼치기 좋은 공간” 한동훈에 ‘토사구팽 가능성’ 경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일 4·10 총선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젊음, 미래, 개혁의 가치”를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동탄2신도시는 평균 연령 34세”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가 경기 화성시 지역구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갑·을·병→갑·을·병·정) 선거구 확정안을 통과시

키자 곧바로 화성을 출마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 후보는 미정이다.

이 대표의 화성을 출마는 지난달 26일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이 대표는 보수 본류인 TK에 출마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과 동떨어진 선택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대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2일 ‘SNL코리아’에 출연한 이 대표는 진행자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와 한 위원장 그리고 본인에게서 공통 연상되는 사자성어’를 묻자 “토사구팽”이라며 “결과 안 좋으면 뒤처럼 버려지겠조”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화)	57~47	8일(금)	58~43
6일(수)	57~49	9일(토)	50~47
7일(목)	53~38	10일(일)	58~42

3월4일(월) 68~4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3·1운동 증명한 KDNA, 세계에 제시해야”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이 3·1절 기념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유숙 회장은 “세계적 평화운동으로 평가받는 3·1운동을 오늘날의 통일운동으로 승화시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가 될 ‘남북평화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3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일요일 낮 시간임에도 12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김유숙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연설을 통해 “KDNA를 통일 한국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반만년 역사동안 타국을 침략한 적 없는 평화지향적 민족성, 효와 열, 충을 도덕적 신념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 민족성 등이 합축된 우리들의 DNA, 한민족의 정체성을 세계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한국의

미주통일연대 3·1절 기념 특별 강연회
김플린·최정수·마이클 이 등 강연 이어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KDN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장태환 UC 리버사이드 대학교 교수가 원격으로 ‘안창호 선생과 미국내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라는 주제로, 전 CIA 요원 마이클 이 박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대한

민국 건국’을 강연했다.

또한 ‘서재필 박사의 미국내 독립운동과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회장이 강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글로벌 평화재단 김플린 세계회장이 참석해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의 통일운동’에 대해 강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박세용 기자**

벚꽃 정점시기 3월23-26일

국립공원관리국 발표
10일경부터 개화 시작

국립공원관리국(NPS)이 벚꽃축제가 열리는 워싱턴DC 타이틀 베이슨 지역 벚꽃 개화 정점시기를 3월 23-26일 사이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보다 평균 정점시기인 4월4일에 비하면 2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가장 빨랐던 때는 1990년으로 3월15일이었다.

타이틀 베이슨의 요시노 벚꽃나무는 이미 개화 1단계에 돌입했다. 벚꽃은 모두 여섯단계를 거쳐 만개하는데, 1단계는 꽃망울이 맺히는 단계를 말한다. 개화 2단계는 꽃망울에 푸른 기운이 돌 정도로 커지는 시점, 3단계는 꽃망울 속에 꽃잎이 보이는 시점을 말한다. 4단계는 꽃

망울이 터지는 시점, 5단계는 꽃잎이 퍼지는 시점, 6단계는 꽃잎이 커지는 시점이다.

첫 벚꽃은 해당 개체 벚나무 꽃망울의 70%가 개화하는 시점보다 열흘정도 앞선 시기를 말하는데, 대체로 정점시기보다 열흘 정도 앞선다. 따라서 벚꽃이 빠르면 3월10일경부터 개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워싱턴DC 벚꽃축제는 3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연날리기, 퍼레이드 등으로 프로그램이 채워져 있다. 올해 축제는 DC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에서 각종 기념 행사 30여개가 예정돼 있다.

김윤미 기자

교도소 들락거리던 불체자, 살인 혐의 기소

MD 몽고메리 카운티
용의자, 변명 일관

살인사건 용의자가 불법체류자였으며 수시로 체포됐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월8일 랭리 파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세 남자 아이와 17세 어머니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범행 일당

을 체포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2세 아이는 숨지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이 작년 5명의 범행 용의자 중에 닐슨 그랜나도스-트레조(25세, 주거 불명)를 절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체포 및 구금했던 전력이 나타났다. 연방이민 세관단속국(ICE)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인계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운티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지며,

마크 얼릭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는 “우리는 규정대로 비폭력범죄, 경범죄 위반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ICE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불체자에 대한 범죄 처벌이 불가능한 ‘생츄어리 시티’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는 불법체류자 석방 24시간 전에 ICE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48시간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킹스파 한인직원 성폭행 혐의 체포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한국식 사우나 ‘킹스파(King Spa&Sauna)’의 한인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7일 킹스파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허영욱(38)씨를 3건의 2급 성폭행 혐의 및 1건의 4급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오후 4시

펠팍 경찰은 허씨가 근무 도중 한 개인과 성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펠팍 경찰과 버겐카운티 검찰 성범죄전담반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뉴저지 파라마우스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버겐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사건은 버겐카운티법원에서 담당하며 첫 출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하은 기자**

버라이즌 5G 월 4불 인상 T모빌 인터넷 월 60불로

국내 3대 통신사(AT&T, T모빌, 버라이즌)들이 연초부터 이동 통신 및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요금 인상에 나섰다. 버라이즌은 오늘(3월 1일)부터 기존 ‘언리미티드(Unlimited)’ 5종(5G Get More · 5G Play More · 5G Do More · 5G Start)플랜의 월 사용료를 4달러씩 인상했다.

CNET은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고객들을 기존 플랜에서 최근 출시한 ‘마이플랜(myPlan)’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지난 1월에도 AT&T가 ‘언리미티드(Unlimited)’ 플랜에 대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이번 달 5일부터 회선당 월 99센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T모빌도 같은 달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월 60달러로 인상했다. **서재선 기자**

▶ 1번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공화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70~8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퍼 화요일에 걸린 당 대의원의 약 90%를 가져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경선(조지아·하와이·미시

피·워싱턴주), 아니면 19일 경선(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 대의원(2429명)의 과반(1215명)을 확보하면서 경선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다.

최근 언론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한 흐름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데가 지

난달 25~28일 미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를 뽑은 응답자가 48%로 바이든을 택한 응답자(43%)보다 5%포인트 많았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온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팔순 넘어 '패션 아이콘' 아펠 별세

SNS팬 300만명의 패션니스타

빨데 안경과 알록달록하고 과감한 의상으로 유명했던 '패션 아이콘' 아이리스 아펠(사진)이 1일 별세했다. 102세.

우아한 백발과 강렬한 붉은 립스틱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는 화려한 색감의 옷과 특대형 액세서리도 소화해내는 패션니스타였다. "말을 수록 좋고 적은 것은 지루하다"는 좌우명 그대로였다.

1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의 유명 디자이너 겸 사교계 명사인 아펠이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그는 '그레니 시크(Granny Chic-할머니의 옷차림을 세련되게 연출한 것)'의 대표 주자였다.

그는 약 30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10대'라고 소개했다.

80세 넘어 패션계 유명 인사가 된 그는 광고·패션잡지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말년에 화장품 회사 맥(MAC), 패션브랜드 케이트 스페이드, 의류업체 H&M 등과 협업했다. 미국의 바비인형 제조사인 마텔이 2017년 아펠의 모습을 본뜬 바비를 만들기도 했다. 97세였던 2019년에는 세계 최대 모델 에이전시 IMG와 계약했다.

1921년 뉴욕에서 태어난 아펠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17~19세기



직물 복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 화장품 업계 거물 에스티 로더를 고객으로 두며 회사를 키웠다.

아펠은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등 역대 미국 대통령 9명의 백악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도 했다.

아펠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2005년 자신이 소장한 의상 82점과 액세서리 300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 것을 계기로 패션계 명사로 우뚝 섰다. 이 전시회는 당대 최고 디자이너였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카를 라거펠트가 참석해 화제가 됐다.

그의 패션에 한계란 없었다. 2015년 BBC 인터뷰에서 연령에 맞는 옷차림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어떤 옷이든 적절하다"며 "다른 사람처럼 옷을 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서유진 기자

'차표' 노린 바이든, 중국 전기차 때려

(자동차업계 표)

행정부 조사, 125% 폭탄 관세 추진
"중국산에 미국차 멸종" 우려 반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 전기차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전기차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등을 예고하면서다.

3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사실상 값싼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령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우려 국가(중국)의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를 조사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지난 1월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 간담회에서 "전기·자율주행 차는 운전자와 차량 위치·차량 주변 상황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조시 홀리 공화당



중국 업체인 BYD 전기차 Atto 3.

의원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약 4.5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럽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한다며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미국도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들어 중국산 전기차를 제재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광선 레이더나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수집하는 실시간 위치나 주행기록, 영상 같은 자료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만국 공통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지난 2021년 테슬라에 탑재된 카메라들이 첩보를 빼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군 시설과 일부 국유기업에서 테슬라 운행을 통제하라는 바 있다. 짐 셰이커 영국 자동차산업연구소 소장은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중국 전기차는 영국을 마비시

키기 위해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의 이면에는 가격 경쟁력이 탄탄한 중국산 전기차가 서방의 자동차 산업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약시어스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값싼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실존적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4일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중국 정부의 권력과 자금 지원을 받아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멸종을 맞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유럽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면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 중국의 자동차 수출 공세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가장 큰 라이벌인 한국을 꼽으면서 "의미 있는 배터리 금속 채굴 매장량은 없지만, 엄청난 투자로 세계 최대의 가공 허브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수민 기자

미국시장 4위 현대차, 리콜 횟수 3위

(판매량)

작년 리콜 명령 41회, 574만대 달해
판매량 2위 토요타 대비 3배에 육박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최고 실적을 내며 판매량 4위를 차지했지만, 리콜 명령 횟수도 상위권에 올랐다.

2022년 북미 자동차 그룹 중 리콜 횟수 전체 2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모가 더 큰 토요타-제너럴모터스(GM)보다 리콜 횟수가 1.6~3배 많았다.

지난달에도 미 교통당국이 제네시스 엔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9만대의 리콜 명령을 내려, 현대차그룹의 '품질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3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리콜 명령 횟수는 총 41회로, 573만8757대(동일차종 중복 리콜 누적)가 리콜 대상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시스템 결함이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차체구조·유압식 브레이크·파워트레인이·가솔린 연료시스템·에어백 결함이 각 4회

미국 주요 차량 리콜 횟수	포드	58회(615만2738대)
	스텔란티스	45(273만2398)
	현대차그룹	41(573만8757)
제조사별 브랜드 합산,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기아·현대트랜스리드 합산	BMW	32(34만249)
	벤츠	31(47만8175)
	GM	25(202만1033)
자료: NHTSA	토요타	14(425만680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자동차 회사는 포드(58회, 대상 차량 615만2738대)였고, 스텔란티스(45회, 273만2398대)가 뒤를 이었다.

차량 판매 상위 그룹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65만2821대의 완성차를 판매해 4위에 올랐다.

판매량 1위 GM(259만4698대)의 지난해 리콜 횟수는 25회, 2위 토요타(224만8477대)는 14회에 그쳐 현대차(41회)보다 적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현대차·기아의 리콜 횟수는 평균 33회로, 토요타(12.8회)·GM(31.8회)보다 많았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기아의 결함 원인은 전기 시스템→유압식브레이크 순으로 많았고, GM과 토요타는 에어백→전기시스템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시스템은 엔진·변속기 등 다양한 차량장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핵심 시스템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전자제어장치(ECU) 등에 대한 리콜이 많은데, 과거보다 차량의 전자 계통이 복잡해졌고 제조사가 새로운 기술·부품, 소프트웨어(SW)를 접목한 신차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국내에서도 49회의 리콜과 164건의 무상수리(무상점검)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의 결함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국내에서 리콜·무상수리는 합산 131회였지만, 지난해엔 213회로 치솟았다. 5년간 리콜·무상수리 규모(동일차종 중복 누적)는 각각 724만3359대, 1049만27500대다.

고석현 기자

E-4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법안 서명 운동 시작

한인단체들, 전자청원 플랫폼에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 개설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1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최근 뜻을 모으고 전자청원 플랫폼(Change.org)을 통해 E-4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org/PartnerWithKoreaAct)를 개설했다.

이 서명운동은 연방의회에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최근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하다"며 "한인사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주류사회의 지지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기능 잃은 신체 인쇄해서 다시 쓰는 시대 열린다

어린 시절, 겨울의 기억 중 하나는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와 그 주전자 주둥이에 걸려 있는 털실이었다. 작아진 스웨터에서 풀린 꼬불꼬불한 털실이 주전자 속 뜨거운 증기를 만나 처음처럼 매끄럽게 변하고, 이내 엄마의 뜨개바늘 끝에서 장갑이며 모자며 목도리로 엮이는 광경은 어린 나의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다. 뜨개질은 인류가 습득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용성 높은 기술 중 하나다. 실이라는 1차원적 물질이 뜨개바늘이라는 도구와 만나면 2차원적 직물에서부터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수예품까지 다양하게 변주된다. 그런데 현대 과학의 발전은 뜨개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몸에 걸치는 직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 그 자체에도 시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바이오잉크를 통해 생체를 찍어내는 '바이오프린팅'을 통해서 말이다.

3D 프린터, 생체를 찍어내다

바이오프린팅이란 뜨개질을 통해 편직물을 만들어내듯,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엮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는 뜨개실과 뜨개바늘이 필요하듯, 바이오프린팅에는 바이오잉크와 바이오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특히나 생체 조직은 대부분 입체이다. 입체 구조물을 출력할 수 있는 3D프린터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세포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이는 미국 텍사스의과대학의 로버트 클레베다.

생체 찍어내는 바이오프린팅 신약 개발 사전 테스트에 유용치아·뼈 보완은 이미 현실화 신기술 적용 사회적 합의 필요

1986년, 그는 단백질로 구성된 얇은 막을 종이처럼 이용해 그 위에 세포를 프린터기로 출력해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박막 형태로 2차원 구조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는 3D프린터가 나와 있었기에 세포를 면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입체물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이는 곧 사실이 되었다.

바이오프린팅의 적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다. 살아보면 다양한 이유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을 수 있는데, 그때 바이오프린팅은 이를 보완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 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용 바이오프린팅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전 단계→출력 단계→후처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 단계에서는 프린팅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다.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스캐닝하고 프린팅할 부위를 세세하게 모델링 하여 출력 정보로 변환하는 것까지가 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바이오잉크를 선택하여 3차원 구조물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한 연구원이 바이오프린터로 출력한 인간 심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크기의 100분의 1이지만, 실제 심장 세포를 활용했다. [신화사·연합뉴스]

제작하는 것이 출력 단계이다. 그리고 생체 출력물이 무너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안정화하고, 이식 후 생착을 돕는 물질로 코팅하는 등의 후처리 단계까지 거쳐야 비로소 사용 가능한 조직이나 장기가 온전히 갖추어진다.

바이오프린팅의 의료적 쓰임새는 크게 의료적 예측과 실질적 대치로 나뉜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르기에 표준 치료법이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술 전에 환자의 병변을 미리 스캐닝해서 복제하면 충분한 사전 연습이 가능하고 부수적 손상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환자의 몸에 번진 암세포를 복제하면 환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항암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전 테스트는 신

약개발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윤리적으로나 실질적 문제가 있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임상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바이오프린팅의 다양한 쓰임새

여기서 나아가면 바이오프린팅은 그야말로 신체를 대치하는 기술로 이어진다. 바이오프린팅을 통해 손상된 치아나 뼈를 보완하는 임플란트 형태의 의료 보철물의 제작은 이미 현실화됐다. 생체에서 유래한 세포로 출력된 신체 분야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방광이다. 2010년대,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의 알라타 교수팀은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출력된 방광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자의 몸속에서 수년간 기능 하며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조직 및 장기 이식 가능성을 밝히는 신호탄이 되었다. 뒤이어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르가노보의 바이오프린팅을 통해 제작한 간을 배양기 내에서 90일 이상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생명공학 회사인 3D바이오 셰라퓨틱스는 선천적으로 소이증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연골세포를 이용해 완벽한 모양의 귀를 출력해 이식했다. 이처럼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신체의 보완과 대치 분야의 가능성은 여전히 밝다.

인체의 타고난 복잡성과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출력물이 신체 조직을 완벽하게 대치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건대 인류는 그다지 머지않은 미래에 기능을 잃은 신체 부위를 몇 번이고 인쇄하여 재사용하는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문제는 치료 개념으로 시작했던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곧 신체 강화와 개조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전장에서 안면 손상을 입은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성형수술이 곧 미용수술로 발전했고, 유전성 질환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된 유전자 검사가 맞춤 아기의 가능성으로 이어졌듯이 말이다. 인체에 대한 치료와 강화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권고

CDC, 4개월 경과 고령자 대상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비드-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CDC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마지막 백신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했다면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맨디 코헨 CDC 센터장은 "작년 코로나 감염 사망자와 입원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었다"면서 "고위험 감염군

이 백신 접종시 면역력을 높여 사망 확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CDC는 자문위원회는 고령자의 백신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지, 단순히 맞을 수도 있다고 권고할지를 놓고 오랜 숙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도 저항력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CDC 자문위

원회는 "백신 접종 효력이 점점 줄어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이 이익이 크다"고 반박했다. CDC의 고령자 부스터 백신 접종 권고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다.

당국에서는 비상사태가 해제됐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령자와 면역저하자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에도 매주 코로나바이러스 사

망자는 전국적으로 2천명에 이르고 병원 입원자는 2만명이 넘는다. CDC는 작년 가을 생후 6개월 국민 모두 부스터 백신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으나 접종 실적은 좋지 않다.

현재 미성년자 접종률은 13%, 성인 접종률은 2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42%에 그치고 있다. CDC는 새 백신 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크게 아플 확률이 50%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옥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내장금(미라조동) 300m
웨이리노래방 뉴타운

미라조 물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V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2626; NC 161472; VA MC-2777; DE 130643; TX: PA 101075; WV ML-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2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대선 재대결 확정 앞둔 트럼프, 바이든에 우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화요일(5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흑인, 젊은 층 유권자의 이탈도 바이든 대통령의 약세 원인으로 지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1~28일 미 유권자 1천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년간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WSJ 여론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또한 본인의 재정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작년 12월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43%를 차지했다. 미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

식이 최근 몇 달 새 크게 개선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 같은 경제 인식 변화가 바이든 대통령에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향한 표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간 양자 대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은 바이든 대통령(4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때의 간격(4%포인트)보다는 격차를 좁히긴 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 호전에 비하면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WSJ 설문 응답자의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81)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많다고 여겼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77)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52%였다.

CBS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

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천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오차범위 ±3.5포인트)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48%)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훌륭하다·좋다'는 답변이 트럼프 전 대통령(46%)이 바이든 대통령(33%)보다 더 높았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를 상승시킬 것'(55%)이란 답변이 '물가를 하락시킬 것'(17%)이란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물가 상승' 34%, '물가 하락' 44%를 각각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대한 기분을 묻는 말에 응답

자들(복수응답)은 '부정적'(48%), '우울한'(42%) 등의 단어를 많이 꼽았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25~28일 1천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선 것(오차범위 ±2.5%)으로 나타났다.

인종·연령별로 보면 흑인 유권자의 2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는 2020년 2월 조사(4%)보다 7배나 높은 수치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대 미만 유권자(51%) ▲ 히스패닉(48%) ▲ 교외 거주 여성(43%) 등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군소후보까지 포함한 5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1%)이 바이든 대통령(38%)보다 우위에 있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등은 각각 13%, 3%를 기록했다.

“불륜남과 호텔 갔다 아침에 국회 출근”

일본의원 스캔들 사과

일본 여당인 자민당 소속 현직 의원이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만에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 소속 히로세 데구미(57·여·사진) 참의원(상원) 의원의 의혹을 시인하면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난해 10월 외국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히로세 의원은 빨간색 벤츠를 몰고 한 남성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다”며 “두 사람은 호텔에 가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 “이후 그대로 국회로 직행해 예산위원회에서 피곤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다. 매체는 히로세 의원과 외국인 남성이 손을 잡은 모습 등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히로세 의원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저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 것, 가족들을 배신해 버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불편한 감정과 불신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가족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데일리신조는 히로세 의원이 지

배재성 기자

바이든, 최악의 직무평가에 말실수까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잇따라 말실수를 한 데 이어 직무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까지 받아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수 계획을 발표하던 중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혼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더 해야 하며, 미국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우리는 요르단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항공으로 우크라이나에 구호품을 뿌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고한 생명과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

황”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를 지칭하고자 했으나 이를 ‘우크라이나’로 잘못 말했으며, 이후 과정에서 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자와 우크라이나를 두 번 혼동했다”

고 2일 전했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크고 작은 말실수를 반복하며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에 휩싸여왔다.

지난달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2017년 별세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를 혼동하기도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5~28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강하게 불신한다는 응답은 47%에 달했다.

이는 자체 조사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호감도 측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38%)은 트럼프 전 대통령(44%)에게 밀렸다.

미국, AI 무인전투기 개발 본격화

미중 패권 경쟁이 신냉전 양상을 띠어가는 가운데 미 공군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협동전투기(CCA)로 불리는 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올해 여름까지 방산업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잉,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제너럴 아토믹스, 안드릴 등 미 군

수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 중이다.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협동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달러의 예산을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인 협동전투기는 편대장기를 옆에서 호위하는 ‘윙맨’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존 드론(무인항공기)과 구별된다.

인간 조종사가 모는 편대장기의 지휘에 따라 호위는 물론 공격 임무를 합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 ‘갬빗’ 렌더링 이미지

제너럴 아토믹스 제공

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AI 윙맨’인 셈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협동전투기가 미국

의 F-35 전투기나 최신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등과 함께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

다. 보잉은 앞서 무인 전투기 MQ-28 ‘고스트 배트’를 공개하고, 호주 공군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고스트 배트의 전장은 11.7m로 F-16 전투기(전장 15m) 대비 4분의 1가량 작다.

안드릴은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퓨리’의 모형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무인기 ‘리퍼’(MQ-9) 개발사 제너럴 아토믹스는 AI 기반 신형 무인기 ‘갬빗’ 시리즈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은 현재까지 개발 프로그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매년대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실버 재혼, 자녀와 가족의 절대 지지가 가장 중요

100세시대 실버 재혼

이제까지 인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백세시대가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 예전에는 배우자를 잃으면 혼자 사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10년 정도는 혼자서도 견딜만 했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전부터 소셜연금 수령 나이가 뒤로 밀리는 것이 진행됐음은 연방 정부도 백세시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세까지 해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면 젊어서 이혼해 혼자인 것과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존도 바뀌어야 한다. 100세시대 실버 재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다.



한인 시니어 부부가 다정하게 상대를 돌봐주고 있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황혼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ing.com copilot 생성]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철없는 몇몇이 '황혼 이혼'이나 '졸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있다. 평생을 남편의 압박과 무시 속에서 살았던 여성이 홀가분하게 남편을 벗어난다는 취지였다. 앞으로 남은 수 십년을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나 최소한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예가 아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팔리니 그렇게 썼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식 주례 선생님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정말 어이 없는 얘기다.

수명 길어지면서 논의 늘어 돈 많을수록 자녀 반대 심해 한국선 전문 결혼회사 성업

버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싱글 시니어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78%가 찬성이었는데 비해 여성 60%는 재혼보다는 연애가 낫다고 응답했다.

둘째, 기존 자녀들은 실버 재혼의 긍정적 측면으로 삶의 활기와 정서적 만족, 상호의지 및 독립된 삶의 의욕을 들었으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계부모 자녀관계상의 어려움과 사망한 부모에 대한 충성심(핏줄의식)을, 여성은 재혼으로 인한 삶의 번거로움, 관계상의 적응, 법적인 갈등 문제를 꼽았다.

셋째, 기존 자녀들은 건강, 경제적, 성격을 재혼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황혼

재혼'에 대한 찬성 이유로 여성의 경우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모께서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다'가 12%, '부모의 새로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가 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역시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재혼 가정이 크게 늘면서 상속 문제로 인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력 있는 여성 쪽에서 황혼 재혼 후 자기 재산이 나중에 전처 자녀에게 돌아 갈까봐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실버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재혼을 원하는 시니어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51%)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럽고(41%) 새로운 가족 관계의 어려움(36%) 때문에 재혼을 선택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니어가 재혼에 이르러가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 드신 분이 주책없다'는 자식이나 주변의 시선이다.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한 이모 씨가 여자에게 폭 빠진 것처럼 보이자 자식들이 나서 재혼은 물론 교제마저 못하게 했다고 전한다.

로맨스도 좋지만 관계에 '돈'이 얽혀 있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재산분배'다. 그래서 최근엔 외국 스타처럼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나중

에 재산 분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생활 도중 유고시 상당액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주변 시선도 의식하고 자녀들의 반대와 재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사실혼, 즉 동거나 연애 즉 중국식 '주혼'을 절충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중국에서는 일종의 주말 부부식 만남인 '저우혼(走婚)'이 시니어들의 재혼의 한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혼'이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非婚同居)' 생활을 말한다. '걸어 다니며(走) 이루어지는 결혼(婚)'이란 뜻에서 '주혼(走婚)'이란 이름이 붙었다. '동거'라고는 하지만 한 집에서 1년 365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 주일에 며칠 혹은 주말을 함께 보내고, 나머지 요일은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주혼'은 여성이나마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의식변화의 산물이다.

현대사회가 노인들의 재혼에 갈수록 너그러워지고는 있지만 교제 범위나 협조하고 자녀 문제까지 겹쳐 시니어들이 재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며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오래된 생활 습관과 방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같이 살면서 적응해야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면서 재혼도 실패하고

장병희 기자

◆다양한 진통제 제대로 복용하기

시니어의 일상에서 진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주치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OTC진통제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약명	아이부프로펜 (ibuprofen)	나프록센(naproxen)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아스피린(Aspirin)	국소 진통제
시판명	Advil, Motrin, Midol	Aleve, Naprosyn, Naprelan	Tylenol, FeverAll, Panadol	Aspirin	
무엇인가	발열을 낮추고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발열을 낮추고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신체가 통증을 감지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뇌에서 작용하여 통증에서 중독도의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및 항열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중단시키는 NSAID입니다. 또한 발열과 혈액 응고를 감소시킵니다.	피부 표면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마취제다. 디클로페낙 나트륨 국소 겔 1%라고 불리는 국소 NSAID는 관절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가장 적합한것	두통, 근육계통 통증, 관절염, 치통, 요통, 일광화상, 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보다 더 안전한 선택.	두통, 근육계통 통증, 관절염, 치통, 요통, 일광화상, 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보다 더 안전한 선택.	두통, 근육통, 인후염, 치통, 요통, 열차 및 치상 G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진통제.	두통, 관절염, 치통, 근육통, 열차, 최상, 또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NSAID이기도 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통, 일광화상, 관절통 및 연조직 손상.
사용하면 안되는 증상	신경 통증.	신경 통증.	신경통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상처, 개방성 염증, 두통, 치통.	상처, 개방성 염증, 두통, 치통.
피해야할 경우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부전, 폐양, 간 또는 신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부전, 폐양, 간 또는 신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 경우 간 문제를 예방하려면 매일 4,000mg 이하를 섭취해야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신장 질환, 폐양 또는 기타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리도카인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사용하지 마야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적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도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프린스턴에서 3층, 심비스빌 북쪽 4번 4100(4100)에서 1000 거리
센터빌 롯데/첼트리(4100)에서 1000 거리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아시아 바라보는 미국 시각, 이해 넘어 함께하도록 만들 것”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자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선임됐다. 1956년 록펠러 3세가 창립한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한국 등 전 세계 16개 지부와 협업하며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24일(현지시간) 전체 이사회에서 전임 회장이던 케빈 리드 전 호주 총리의 뒤를 잇는 9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회장 겸 CEO 자리에 오른 강 회장은 이달 중 뉴욕으로 건너간 뒤 앞으로 3년간 아시아 각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마주한 강 회장은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이였다. 백발을 오른쪽으로 넘긴 특유의 헤어스타일도 여전했다. 내년이면 만 70세가 되는 그는 “요즘은 화장을 잘 안하고 편하게 다녔는데, 뜻하지 않게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그를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작년 10월 제안, 이사들과 끊임없이 인터뷰”

-언제, 어떻게 제안을 받게 됐나요. 원래 아시아소사이어티와 인연이 좋았었나요.

“인연이요? 전혀요. 영어로 ‘out of the blue’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지난해 10월 말쯤 연락이 왔어요. 7명의 인선위원 한 분 한 분과 zoom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지난해 12월 중순쯤 뉴욕으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선 인선위원 외에 미국의 주요 이사들과도 직접 만났습니다. 동북아 정세 등 두루두루 폭넓게 물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죠. 그런데 6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니 다른 이사들에게도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또 끊임없이 zoom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추천받아 출발했더라고요.”

강 회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 세명의 유엔 사무총장 아래에서 유엔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지내 뉴욕 현지에서 인맥이 두텁다. 인선 발표 직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유엔의 좋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반겼다.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연대 특임교수 연구실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최영재 기자

“원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출발했는데 중국통인 리드 전 회장 재임 시절 중국 연구 기능을 대폭 키웠어요. 현재 미국 연구 기능은 대폭 키웠어요. 현재 아시아엔 미국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도 자연스레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는 “교육도 단지 학습이란 개념을 넘어 미국인과 아시아인이 서로를 더욱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이 아시아를 이해하는 게 주였고, 아시아가 미국을 알아가는 쌍방향성은 조금 결여돼 있었거든요. 아시아를 주제로 한 포럼 패널리스트로 미국인 학자였을 정도죠. 이사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인터뷰 때 ‘about Asia’를 넘어 ‘with Asia’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문화예술도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컨텐트퍼러리 문화 교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K컬처도 그중 하나죠.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데는 분명 뭔가 있지 않겠어요. 뉴욕 본부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K컬처를 선도하는 제작

자들을 초대해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해볼까 궁리 중입니다. 인도에도 고유한 팝컬처가 있잖아요. 현재 아시아엔 미국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도 자연스레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회장뿐 아니라 CEO도 맡게 됐습니다.

“책임은 진다는 의미죠. 조직의 대표로서 펀드 레이징도 해야 하고, 직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조직 경영에 관리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5



1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역을 맡았던 강경화 회장. 2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년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침 올해가 그때여서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세계사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잖아요. 그런 아시아를 다루면서도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에 자리한 기관이란 점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중반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 회장은 한·미 관계 등 달라진 외교 정책과 국제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북·미 대화와 미·중 갈등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미 관계를 진단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 긴밀해졌죠. 그 배경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극복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전통적 수준을 넘어 좀 더 포괄적 협력 관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너무 동맹, 안보 위주의 관계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 싶는데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후변화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고요. 또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내놓고 말하기 힘든 얘기가 있기 마련인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 대선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신임 회장 입장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애길 안 하는 게... 어쨌든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터라 다들 고민이 깊겠지만 결과를 직시하고 헤쳐나가야 겠죠. 다만 한·미 관계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특정 사안에선 이견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동맹 관계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초당적 지지가 탄탄하거든요.”

-북·미 관계 또한 관심사인데요.

“북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겠지만 미 대선 후에도 대화가 진전되긴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세 레버리지를 워낙 높여왔고, 러시아라는 카드도 추가됐고요. 한반도 전쟁 위기는 지나친 확대해석 같고요, 국지적 도발이나 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엔 정말 압도적으로 대응해야죠. 중요한 건 전쟁으로 가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핫이슈입니다.

“지난 1월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

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온 평가를 보니 ‘constructive& fruitful(건설적이고 내실 있는)’이란 표현을 썼는데 ‘fruitful’은 중국 정부가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고요. 이는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관리된 전략적 경쟁(managed strategic competition)’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경쟁은 하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거죠. 올해 미·중 관계는 5월 대만 총통 취임식과 11월 미 대선이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양쪽 다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채 숨 고르기 하며 관리 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러길 바라구요.”

“프리다이빙도 도전, 총선 오퍼는 늘 사양”

-장관 퇴임 후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프리다이빙이었어요. 숨 참고 고요한 물속이 들어가니. 2021년 장관 그만두고 거제도도로 내려가 해녀 스킨 등록해 수료까지 했죠. 세계 기록이 몇m게요? 무려 120m예요. 저는 16m까지 찍었고 목표가 20m인데 뉴욕에 가게 돼 당분간 기록 경신은 힘들 것 같아요.”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된 그는 지난해 2월 졸업식 축사를 맡은 자리에서 프리다이빙 얘기를 했다. “사회로 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무슨 말로 격려해야 하나 싶던 차에 그동안 쭉스러워서 비밀로 해온 프리다이빙 도전 얘기를 꺼내어 꺼냈죠. 이 나이에 나도 이런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못할 게 없다고, 엄청 박수받았어요(웃음).”

-곧 총선인데, 영입 제안은 없었나요.

“전혀요.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여야를 떠나 여러 번 오퍼를 받았는데, 여의도 정치가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모두 사양했습니다. 선거에 나갈 배짱이 제겐 없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이 늘 재밌고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른 지명된 정책연구소도 많지만 특히 저히는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많이 내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를 넘어 ‘think&do tank’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장점을 잘 살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생각입니다.”

박신홍 정치사회에디터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필드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리스버그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670,000	\$785,000	\$800,000	COMING SOON	COMING SOON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데, 커다란 부엌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어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희소식!

2004년부터 2019년도에 VISA/MASTER CARD로 매출을 올리셨다면 수수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부터 Visa 및 Mastercard card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뉴욕 동부 법원은 최소 총 지불금 55억 4천만 달러를 예비 승인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산 수수료로 약 100만 달러를 받은 매장은 약 10,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Visa 또는 Mastercard로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2백만~18백만 개 기업이 해당 소송에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WORLD BANK CARD SERVICES로
연락주세요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승진하면 임신 말라” ... ‘0.65명 쇼크’ 아랑곳 않는 직장들

(출산율)

여성 27% “출산하며 차별 경험”
입사 땀 ‘결혼하면 퇴직’ 각서도 써
둘째 이상 출생아, 10만명 첫 붕괴
“기업, 일·가정 양립 문화 앞장서야”

#1. 승진 인사를 앞둔 여성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승진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승진한다면) 임신·육아 휴직 등으로 뒤통수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승진 후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직장인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본부장으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았다. 회사 경조 휴가에 연차를 붙이려고 했는데 본부장은 “어차피 연차 휴가 신청을 결재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소개한 일부 기업의 출산·육아 관련 부당 대우 사례다. 지난해 4분기 집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 직장인의 고충은 출산·육아 의지를 꺾어내리는 한국 직장 문화의 실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27.1%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신·출산 등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셈이다.

대부분 여성에게 입사할 때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받거나 여성을 채용할 때 미혼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경우였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안이지만,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피해를 증명하기 힘든 이른바 ‘은근한 차별’도 존재했다. 3년 차 병원 직원 C씨는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했는데, 병원은 복지 차원에서 원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C씨만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단축 근무로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D씨는 결혼 소식을 알리자 상사로부터 “어차피 휴직하고 마무리 안 하고 나갈 사람 아니냐”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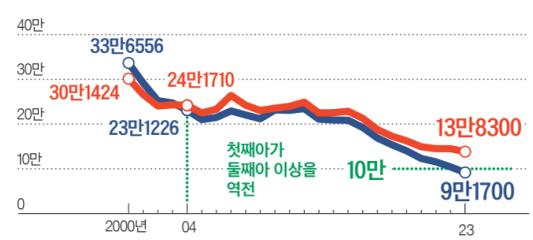
이렇다 보니 한국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뒤처지는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2020년 기준)는 48명으로, 일본(44.4명)과 함께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였다.



OECD 주요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

국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
스웨덴	409.0
체코	281.1
독일	180.9
노르웨이	145.8
핀란드	140.4
덴마크	81.0
캐나다	58.9
한국	48.0
일본	44.4

첫째아·둘째 이상 출생아 수 단위: 명



자료: OECD, 통계청

힘난한 육아 현실은 출산·육아를 경험해본 부모의 의지도 꺾었다.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2448명 줄어든 9만1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출산율 하락으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자 경제단체인 연방상공회의소가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 경영 문화를 확산시켰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체질 개선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

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육아휴직을 보내면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며 “업종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국방부 “정찰위성 1호기 정상 작동” 김정은 집무실 등 평양도 심 찍은 듯

작년 12월 발사...6~7월쯤 전력화
군, 4월 첫째주에 2호기 추가 발사

지난해 12월 발사한 군 정찰위성 1호기가 평양 중심부를 포함한 북한 주요 표적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찰위성 1호기가 최근 지상으로 보내온 위성사진에 대한 검증과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6~7월쯤 정상적으로 전력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전송 사진에 찍힌 평양 중심부의 구체적인 표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군사시설과 평양 등 주요 지역

에 대한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정찰위성 1호기는 현재 400~600km 고도에서 하루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낮에는 전자광학(EO), 밤에는 적외선(IR) 센서를 이용해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의 해상도는 약 30cm로, 가로세로 30cm의 점을 한 개의 픽셀로 식별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 서버미터(해상도 가로세로 1m 이하)급 위성 중 성능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1~5m 정도로 추정된다.

정상적인 송수신이 이뤄졌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 격인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는 물론 주요 군사시설의 차량 이동과 이동식 발사대(TEL) 등도 식별이 가능하다. 한·미 연합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역량을 확보

하게 된다. 그간 미국 정찰위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한국의 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이 됐다.

군은 2025년까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해 대북 위성 정보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첫째 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추가로 발사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2호기는 레이더 전파를 이용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이다.

남·북국의 극궤도를 도는 EO-IR 위성보다 SAR 위성은 경사 궤도를 돌며, 가시광선에 의존하지 않아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표적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이유정 기자

화천 ‘200억짜리 돌봄시설’... 경북선 ‘24시 어린이집’

공연장·파티룸 등을 갖춘 돌봄시설, 청년을 위한 반값 또는 초저가 임대 주택... 지난해 4분기 집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자녀 돌봄과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은 지난달 27일 초등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다. 216억원이 투입된 이곳은 공연장,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돌봄시설, 체육관, 창의교육실을 갖췄다. 맞벌이와 한 부모,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1~2학년생 1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이 임대주택을 짓고 전입 가정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인구 2만3000여 명인 화천군은 2017년부터 저출산 해법으로 교육과 보육지원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집계 출산율 1.26으로, 강원도 시·군 평균(0.89)보다 30% 정도 높다.

서울 노원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아이휴

센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28개를 가동 중이다.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도 노원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출산 대책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집계 출산율(0.67)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구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 등 일회성 지원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올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목표로 경북형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조기퇴근 돌봄’,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운영을 돕는 ‘경북형 학교 늘봄’, 24시 어린이집·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을 확대하는 ‘심야 돌봄’ 등 3가지 시책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은 청년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아파트’ 250가구 공급을 구상 중이다. 지난해 ‘만원 임대주택’을 선보인 전남 화순군은 이달 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종권·문화철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왼쪽 사진). 가운데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미복귀)

정부는 법대로

정부, 오늘부터 현장 복귀 현황 파악 대통령실 “과거 같은 실수 반복 안해”

“과거 정부처럼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일 서울 여의도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2000년), 원격의료(2014년), 코로나19 시기 의대 증원(2020년) 때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정부는 모두 백기 들기에 바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입장)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강경 입장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필수의료 체계 붕괴와 관련해 “결국 의사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비급여 진료에만 몰려 있다.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 조사(1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취임 두 달째인 2022년 6월 5주 조사 당시 43%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가 1위였다(※2월 27~29일, 성인 1001명 전화면접조사. 표



경찰이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품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 의료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거론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의료계 집단휴진 15일 만에 뒤로 물러섰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집단행동에도 의료 대란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들어 병원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에도 자신감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 중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익의 균형과 비례성 등을 따졌을 때 법원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과거 집단행동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차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각 수련병원 현황을 직접 점검해 복귀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이미 미복귀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수사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도 마쳤다.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시한

(4일)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이 써낼 증원 규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와 의대 학생들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대체로 이번 증원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본다. 정원을 현재보다 2~3배로 늘리겠다는 곳도 적지 않다. 아주대(40명→110~150명)와 경상국립대(76명→200명), 경북대(110명→250~300명) 등이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집단 유급’ 여부는 3월 중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는 2월 중순께 개강하는데, 올해는 집단 휴학계 제출 등으로 다수 대학이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 없어 “3월 중순이 한계”라는 말이 나온다.

박태인·장주영·서지원 기자

백혈병 명의 ‘꽃게탕 캠핑’ ... 환자 2000명 산악회도 있다

김동욱 의정부유지대병원 교수

회원 수 2000여 명. 활동 기간 20년. 전국 7개 지회의 탄탄한 조직력. 이 단체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만든 산악회 ‘루산우회’다. 백혈병의 영문명 ‘루케미아(leukemia)’에서 따왔다. 투병의 고통, 그걸 이겨내려는 희망은 이들을 하나로 엮었고, 단체의 탄생부터 함께해 온 정신적 지주는 김동욱 의정부유지대병원 교수다.

백혈병환우회는 만성 백혈병 분야의 추천 명의로 주저 없이 김 교수를 꼽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을 이끌고 신약 개발까지 주도하는 실력, 환자와 산악회를 만들어 교류하는 따뜻한



김동욱 교수와 함께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모임 ‘루산우회’. [사진 의정부유지대병원]

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환자들은 김 교수를 ‘생명의 은인’이라거나 ‘교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쯤 되면 신뢰를 넘어서 종교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의정부유지대병원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그는 서울성모병원 초대 혈액병원을 역임했

고, 2021년 9월 이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환자와 병원 밖에서 교류한 계기가 궁금하다.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환자와 병원 밖에서 소셜 이벤트를 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성모병원

으로 갑자기 발령났는데 환자들이 ‘이대로 못 보낸다’라면서 캠핑을 제안했다. 흔쾌히 수용했다. 뭔가 해줘야겠다 싶어 꽃게 50마리를 사서 끓여 먹었다. 제가 꽃게탕을 엄청 좋아한다.”

환자들과의 교류 목적이 단순히 친목 도모는 아니다. 지역 모임이건, 캠핑이건 항상 김 교수는 두 시간씩 강의한다. 진료실에서 물어보지 못한 궁금증, 신약 개발 정보까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환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표적항암제의 발전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골수 이식은 환자의 역할이 없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는 약을 잘 챙겨 먹고, 치료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의사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환자와 만나는 것은 소통의

좋은 창구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과장 좀 보태서 교수님은 교수십니다.” 제주에 사는 한상봉(58)씨는 17년째 투병 중이다. 진단 후 6개월마다 받는 골수검사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병원 측은 “골수이식이 최종 치료법이니 해야 한다”고 했다. 한씨는 수 소문 끝에 김 교수를 찾아갔고, 글리백 용량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루산우회 홈페이지에는 상담 게시판이 따로 있다. 환자들은 감기나 코로나에 걸려서 어떤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수시로 묻는다. 김 교수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올린다. 그는 최근 기쁜 소식도 접했다. 2001년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최근 출산했다.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 개런티 이자
- / 단기 (3년, 5년, 7년)
-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한 대학병원 진료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전화하는 모습. 같은 날 오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대로 집회장 옆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뉴스]

의사 “증원보다 수가 높여야” 시민 “의료현장 돌아가 달라”

의사는 거리로

경찰 추산 1만2000명 여의도 집결 의협 “정부가 의사 무시하고 탄압” 의신 의식한 영어 플래카드도 등장 경찰청,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 의사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필수요료를 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서울 여의도 광장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

계 위협한다’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는 오후 2시 시작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지역별 의사회 깃발 아래 자리 잡은 의사들은 500m가량의 도로를 가득 메웠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이 4만 명, 경찰이 1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는 40대 이상 개원의·봉직의가 많았지만, 20~30대 의대생·전공의

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수요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과 2년 차 전공의 김모(34)씨는 “환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의사만 강제로 2배가 되면 의사들 수술 경험치는 절반이 되고 그만큼 초보 의사가 많아져 의료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계약직인 우리가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건데, 강제로 일하게 하는 건 반헌법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천의 신경외과 개원의 장모(61)씨는 “의사들을 지방·필수요료에 가도록 하려면 수가 5배 이상 대폭 올려 수익을 인기 분야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나라가 공공병원에 투자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은 강경했지만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다. 피켓을 든 채 함께 사진을 찍거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가족 참석자 등도 눈에 띄었다. ‘We are not criminals(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Korea government ejects vital doctors(한국 정부가 필수 의사들을 내쫓았다)’ 등 의신의 관심을 의식해 영어 피켓을 들고 나온 이도 보였다. 집회를 목격한 시민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70대 서모씨는 “의사가 환자 생명을 볼

모 삼아 거리로 나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2000명이 늘어나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집회용품을 팔던 한 상인은 집회 참석자 손을 잡고 “의사 선생님들, 오늘까지만 나오시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병력 3200명이 배치됐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현장을 지켰다. 한편,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수현·이영근·박종서 기자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경찰... “강요죄·의료법위반 처벌 가능”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집회를 앞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

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글은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팀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 강제 동원된다’ 등이다. 경찰청은 집회를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

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지위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의 지위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협회 등 차원의 조직적 집회 참석 강요는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16개 사·도의

사회, 사·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아미 기자

그는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1년 정도 약을 끊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 세계 학계에서는 연구성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만성 백혈병이 골수 이식에서 표적항암제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길목마다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2010년에는 의학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4세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진료실만큼이나 병원에 있는 백혈병오믹스 연구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연구원 14명을 이끌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바이오 벤처와 함께 3세대 항암제도 개발 중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환자가 부담 없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 DSS(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도 완료해 진료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DSS는 환자 특성과 검사 결과 등을 축적해 답러닝을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제가 환자한테 내리는 처방과 비교하고 있는데 일치도는 97%”라고 말했다. 이런 김 교수에게 정년은 의미가 없다. “유럽과 미국 제약사에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는데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의 리더는 88세 런던의대 교수다. 저도 그러려고 한다. 만성 백혈병, 끝장을 봐야죠.” 장주영 기자

1면 ‘의대증원’에서 이어집니다 문영수 적십자의료원장은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대표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맞다”며 “그다음에 전공의·대학교수 순으로 대화 채널에 포함되면 된다”고 말한다. 의료법 28조는 ‘의사는 의사회(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앙회가 의협이다. 미우나 고우나 법이 정한 대표 단체다. 대통령실은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의협을 부정하면 현

대치 국면은 이어지고 서로 갈 길만 가게 된다. 모래알 같은 의료계를 모으는 것도 정부 몫이다. 한 의대 학장은 “전정 중에도 몰릴 대화를 하는 법”이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도 장외집회에 매달리면 국민의 괴리감만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쩔 수 없지요. 의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폐암 수술이 연기된 한 환자의 하소연이다. 하소연이 언제 분노로 바뀔지 모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결약은 한곳에서

2023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꾸기

꽃샘추위

봄이 오고 싶더니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고 있다. 이른 봄 약화됐던 사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회복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꽃샘추위'라 한다.

풀어 보면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로 운치 있는 표현이다. 앞이나오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는 뜻으로 '잎샘추위'라고도 한다. 이때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은 '꽃샘바람'이라고 한다. 봄추위를 중국에서는 '춘한(春寒)', 일본에선 '하나비에(花冷え)'라 부른다. '춘한'은 글자 그대로 봄추위를 뜻하는 단순한 말이다. '하나비에'는 '꽃추위' 정도로 '춘한'보다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단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로, 추위를 의인화한 것이다. '춘한' '하나비에'보다 시심(詩心)이 가득 배어 있는 말이다. 우리말이 시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봄은 왔으나 꽃샘추위로 봄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춘래불사춘'이란 말도 많이 쓰인다.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왕소군(王昭君)이 흉노족 왕에게 끌려가는 가련한 처지를 빗대 '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이라 읊은 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답지 않다는 뜻이다. 고달픈 인생살이를 비유적으로 일컫을 때 주로 사용된다. 배상복 기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문화산책

시민 노릇 정말 어려워라!



장소현
시민·극작가

이 글은 나의 답답하고 서글픈 반성문이다.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를 했다. 투표는 '동료 시민'의 신성한 권리로, 의무라기에 하기는 했는데 어쩐지 영 찜찜하고 죄스럽다. 신성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다. 오늘날의 선거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분을 가려내는 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덜 나쁜지를 당최 알 수 없으니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영 자신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생겨난 정치 혐오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정치하는 인간 믿지 말라는 말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의 투표과정을 복기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 우선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두툼한 설명서를 읽는다. 컴퓨터 자동번역기를 돌린 모양인지 문장이 투박하지만 그래도 한글이니 읽을 수는 있다. 천만다행이다. 옛날에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종이라고만 알고, 무척 답답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만세다. 물론, 읽을 수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표용지를 보니 후보자들의 이름이 쭈르르 적혀있고, 직업 같은 간단한 설명이 한 줄 쓰여 있는데, 누가 누구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대통령 후보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겨우 알겠는데, 주상원이나 카운티 수퍼바이저, 지방 검사, 상급법원 판사 등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이고,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한 분을 뽑으려 한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심호흡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성한 투표를 시작한다. 마음을 가다듬어봤자 모르는게 마찬가지다. 머리를 굴려 내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 잔꾀를 낸다. 이런 식이다. 우선 한국 이름 같으면 눈 딱 감고 찍는다, 이왕이면 아시안 이름을 고른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정당을 본다, 나와 같은 정당의 후보를 택한다,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럿이면 직업을 보고 직책과 연관 있는 직업을 가진 후보를 찍는다, 그래도 겹치면 이름이 정겨운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진다.(이름 정겨운 것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결국 기권한다. 아무튼 착한 시민답게 끝까지 노력은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철이면 무더기로 날아오는 선전지가 매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돈 써가며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논리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당선된 뒤에 본전 회수를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니 제대로 투표했다는 자신감이 생길 리 없다. 이걸 터무니없는 폭력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동료 시민들도 나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분이 당선돼서, 우리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실체다. 장님 문고리 더듬기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옳은 것 같다.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그나마 다수결이 진리이니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정의라고 우긴다.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을 움직일 사람을 뽑는 일인데, 무관심하게 공부를 안 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 잘못 뽑아놓고서, 정치가 개판이네 어쩌네 불평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뽑아야 한다.

고분고분 법 잘 지키고, 토박토박 세금 잘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다. 아, 시민 노릇 제대로 하기 정말 어려워라!

살며 생각하며

소시지, 오이지, 단무지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A형, B형, O형, AB형 넷이서 밥을 먹고 있다. AB형이 갑자기 식당을 뛰쳐나간다. O형이 곧바로 따라 나간다. A형, 나 때문인가 하며 울기 시작한다. B형, 상관없이 계속 밥을 먹는다. 물론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는, 혈액형에 대한 우스갯소리다.

나온 김에 우스갯소리 하나 더. A형은 소시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X맞고('X'자는 상상에 맡김),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X맞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X맞고, 그리고 AB형은 지지지, 지X맞고, 지X맞고, 지X맞고라니, 물론 모든 혈액형의 문제점만 열거한 실없는 농담이니 마음에 돌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AB형들은 좀 억울할 거 같다. 지지지라니, 실제 AB형들은, 사실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관찰력도 뛰어나고 사교적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의리파라고 하니, 진짜 좋은 혈액형인데 말이다.

A형도, 사실 싸우는 걸 싫어하고, 주위와의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

는 분석이 있다. 뭐든지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 타입이라고 한다. 상식과 룰을 중시하고, 책임감도 강한 아주 성실한 성격이라고 한다.

'B형 남자친구'(2005)란 영화가 나올 정도로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B형. 하지만 B형들은 사실 사교적이며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다. 적극적이고 추진력 강하고, 겁 없이 모험을 잘하는 스타일, 그리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을 먼저 하는 액티브한 성격. 게다가 친구도 쉽게 사귀는 B형을 왜 비호감이라고 하는지!

끝으로 O형들도, 사실은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성격이다. 쾌활하고 너그럽워서 사람들이 잘 따르며 설득력도 있다. 타고난 리더이자 외교관이

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낭만주의자이면서도 노력형 O형은 일단 목표를 정하면 누가 뭐라든 해내고 마는 능력 있는 타입이라고 한다. 사실 혈액형은 단지 적혈구 표면에 A·B 항원이 있는지, 혈액 속에 어떤 항체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뿐, 성격과의 과학적 인과관계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 사람들은 혈액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성격은 혈액형 같은 기질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기질 플러스 부모의 양육 방식, 성장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성격 테스트들이 존재한다. 꽤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테스트들이 많이 있다. 나도 상담할 때, 아이와 부모의 MBTI 테스트를 활용한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양육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성격 유형 이론은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독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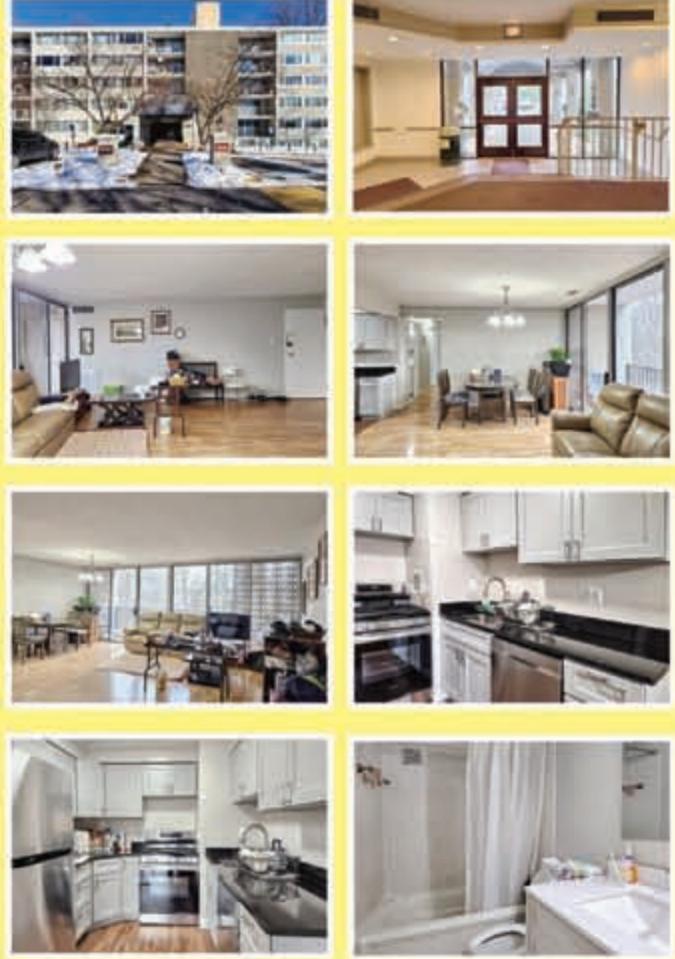


Contract

독점 최근 업그레이드한 예쁜 콘도

Annandale \$250,000

콘도, 방2, 화장실1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독점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사무엘 리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

Q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문=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한 보험은 개인 세금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컴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은 인컴일 경우에 좋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낮은 인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인컴이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보고할 때, 적지 않은 돈을 Penalty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인컴에 맞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 세금 공제의 경우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양 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1600불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 일 때는 20만 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일 때는 4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은 부모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의 부양자녀, 무능력한 배우자 및 부모 등을 위한 보육 비용 최대 3000불의 35%인 1050불, 부양가

족이 2인 이상일 때 비용 6000불의 최대 35%, 2100불까지 공제 됩니다.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격 플러그인 EV 또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를 구입하는 경우 내국세 입법 30D 항에 따라 최대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이 크레딧이 적용 됩니다.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2023년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

우 이 세금 공제는 최대 7430불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 (AOTC)는 정규 교육 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및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서적과 소모품, 기숙사비 등에 적용됩니다.

대학 학비 보조를 청구하려면 싱글일 때는 MAGI가 8만 불, 부부일 때는 16만 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는 9만 불부터, 부부일 때는 18만 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마크 정
애프터보험 대표

Q 은퇴연금의 필수 최소 인출액 (RMD)에 대하여

▶문= 저는 그동안 은퇴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30만 불 정도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돈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401k에 넣은 돈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해놓았던 Traditional IRA, SEP, SIMPLE, 401(k), 403(b) 등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 해야 하는데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라고 합니다. Roth IRA에 저축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3년에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이 개정되어 73세부터 인출하시면 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액보다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이 2만 불인데 1만 불만 찾게 되면 25% 금액인 250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인출 시기는 매해 연말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인출 첫해에는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찾으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연말에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인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년도인 2023년 12월 31일의 모든 은퇴연금을 더하여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나누어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73세의 경우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

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30만 불이 있으므로 73세의 숫자인 26.5로 나누게 되면 11,32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소 인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연금을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 인출 금액을 찾으실 때 한 계좌에서 찾으실 수도 있는데,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RMD를 계산하여 인출하셔야 합니다.



조국현
이민/비자 변호사

Q 한국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가 변경

▶문= 23년 4월부터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답=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

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 경력증명서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 등 7개 국가는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 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 (F-6-2)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23년 4월 13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 비자 발급 신청 시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이 면제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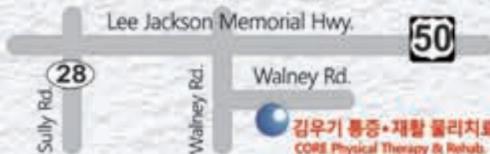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Monday, March 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현대판 도적떼’ 월스트리트 미 정부가 세금 쏟아 쏟아 쏟아

월스트리트, 투자 실패해도 멀쩡
메인스트리트 일반인들만 손해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것은 수십만 년 전의 일이었다. 당연히 최초의 인류는 무정부 상태에서 살았을 것이다. 정부가 없다는 것은 법도 없었다는 뜻이므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더라도 말할 사람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간들은 서로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집행할 정부를 만들어서 폭력 대신 윤리와 법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최초의 정부, 도적떼가 세웠다고 생각
과연 최초의 정부와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경제학에서는 최초의 정부를 만든 사람은 ‘도적떼’였다고 생각한다. 법과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도적이냐 강도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 법과 정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사실 도적떼였다는 것이 진실일 수 있을까? 독자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과거 원시 인류가 농사와 목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발견했을 때 동시에 발생한 직업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도적질이다. 열심히 곡식을 재배해 수확하고 양과 돼지를 키우는 성실한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의 곡식과 가축을 훔쳐서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도적떼 중의 한 패거리가 흑곰과라고 부르겠다. 흑곰과는 한강 주변에서 농민에게 강제로 곡식을



빼는 나쁜 도적떼였다. 그런데 가을 어느 날 흑곰과 도적들이 한 마을로 곡식을 뺏으러 갔는데, 곡식이 한 톨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당황한 흑곰과 두목이 농민들에게 이유를 묻자, 얼마 전 백호파라는 도적의 무리가 마을에 쳐들어와서 수확한 곡식을 다 빼어 갔다는 것이다.

백호파나 흑곰과나 같은 도적질을 하는 동종 직군이므로 백호파의 이런 행동을 흑곰과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흑곰과는 마치 자신의 곡식을 백호파가 빼앗간 것 같은 분

노를 느낄 것이다. 백호파가 계속해서 한강 유역의 농민들의 곡식을 빼어 가면 흑곰과는 빼앗은 곡식이 없어서 도적질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아마 흑곰과는 농민들에게 백호파 도적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물은 후 뒤쫓아 가서 백호파를 급습하고 농민들의 곡식을 다시 빼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백호파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흑곰과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을 것이다. 힘이 없는 농민을 노리는 도적떼가 한둘이 아닌데 앞으로 다른 도적떼에게 농

민들이 곡식을 빼기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흑곰과 두목은 결국 농민들을 다른 도적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강 유역의 농민들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다른 도적떼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보호하는 농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농민들의 생산이 늘어나야 흑곰과도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농민들의 사정을 생각해 매년 적당량의 곡식만 빼앗고 농민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것이다.

흑곰과에게 곡식을 빼기는 농민 입장에서도 여러 명의 도적떼들에게 번갈아 곡식을 빼앗기 보다는 사정을 봐가면서 곡식을 빼어 가면서 한편 다른 도적들을 막아주는 흑곰과에게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수확한 곡식의 일정 양을 흑곰과에게 매년 자발적으로 주게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아마도 세금의 시초였을 것이다. 당연히 흑곰과는 얼마 후 도적떼가 아닌 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농민과 도적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체도 오랜 기간 관계가 지속되면 오히려 협력을 하게 된다는 현상을 ‘반복 게임(repeated game)’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2면 ‘금융’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상담 환영)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n@rowepllc.com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abush@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일본 증시 펄펄, 경제는 역성장... “디커플링 함정 빠졌다”

₩ '볼모델' 거론 일본 경제 착시

엔저·중국 이탈 자금 효과 보지만
실물경제는 냉골, 반면교사 대상

한국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가치상향) 프로그램'을 두고 일본 사례가 볼모델로 자주 거론된다. 최근 일본 증시가 최고점을 찍는 등 주목받으면서다. 하지만 불붙은 증시와 달리 경제 지표가 차갑게 식는 등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한 만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지난 22일 3만9098로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 지수가 3만9000선을 넘은 건 이 날이 처음이다.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인 1989년 12월 당시 고점(3만8915)을 34년여 만에 넘겼다. 닛케이 지수는 지난해 연간 28% 상승한 뒤 올해 들어서도 16% 올랐다.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진 데다 최근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유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의 실물 경제 성적표는 증시와 달리 여전히 냉골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5일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0.4%(연율 환산)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3.3%)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개인소비와 기업지출이 모두 부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달리로 환산한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100억 달러다.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독일(4조4600달러)에 밀렸다.

증시가 뛰었다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경제 체질이 갑자기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단적으로 일본 증시가 고점을 회복하는 동안 미국의 S&P500 지수는 14배 뛰었다. 일본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는 “일본 경제의 실태가 개선됐기 때문에 주가가 치솟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최근 “한 나라의 경제 건전성과 주식 시장 역학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라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현재의 일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증시 개혁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실물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업 구조개선 노력

부진, 급속한 고령화 등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한 원인을 저성장의 문턱에 선 한국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국내외 투자자 90여명을 설명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자기자본이익률(ROE) 8% 등 수치를 단편적인 주가 부양책의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일회성 또는 일시적 대응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를 시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증시 대책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 1면 '금융'에서 이어집니다

어떤 관계의 상대방이든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면 적과의 동침(sleeping with the enemy)이라는 말처럼 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Wall street vs. Main street)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 회사가 밀집한 뉴욕 월스트리트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자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의 부유한 금융 기관을 정부의 돈으로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 기관이 아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메인스트리트가 반기를 들고 항의를 했던 현상이다.

도덕적, 논리적으로는 메인스트리트가 옳다. 동네 마을의 공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 정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해당 사업이 실패한 것은 해당 사업의 종사자들이 잘

못 운영했기 때문이니 국민의 혈세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메인스트리트의 공장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부유한 금융가들이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인데, 미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 금융기관을 도와서 파산을 막았으니 메인스트리트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인스트리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심지어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인의 돈을 받아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한 후 잘 되면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은 엄청난 수수료를 받는 반면, 투자가 실패하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는 고스란히 메인스트리트의 일반인이 감수해야 하니 꽤 씩씩하다면 꽤 씩씩한 집단이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은 현대판 도적떼라는 주장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꽤 씩씩한 월

스트리트를 돕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단순히 월스트리트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일반 공장이나 가게도 모두 파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의 정부들이 금융권에 더 신경을 쓰고 지원해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과거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인류가 생애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후 불과 몇 년 안에 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60세 생일인 회갑을 맞이하면 오래 수명 장수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노후 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 사망하기 직전까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까지 사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만큼 퇴직 후 오랜 기간 생존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생

산활동으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의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상당한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살아야 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곳이 월스트리트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몸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젊어서 저축한 돈으로 돈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노후생활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돈이 돈을 버는 것을 하는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 즉, 금융권이다. 금융권은 일반인이 저축한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중간에서 떼어서 빼돌리는 도적떼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 나의 귀중한 돈을 잘 투자해서 노후에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도 아마 국민 연금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 국민연금의 대부분이 주식 시장에 투자돼 있으므로 나의 노후는 금융권과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사

람은 많지 않다.

반대로 금융권 측면에서 일반인은 단기적으로는 각종 이자와 수수료를 뜯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융권이 지나치게 이익을 챙기면 일반인들이 금융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일반인들이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금융권에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금융권도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견 금융권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 그리고 금융권이 이런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곰과와 농민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과 정부를 만들어서 서로 도왔듯이 반복 게임의 교훈인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의 노후 대비를 금융권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www.Intelisystem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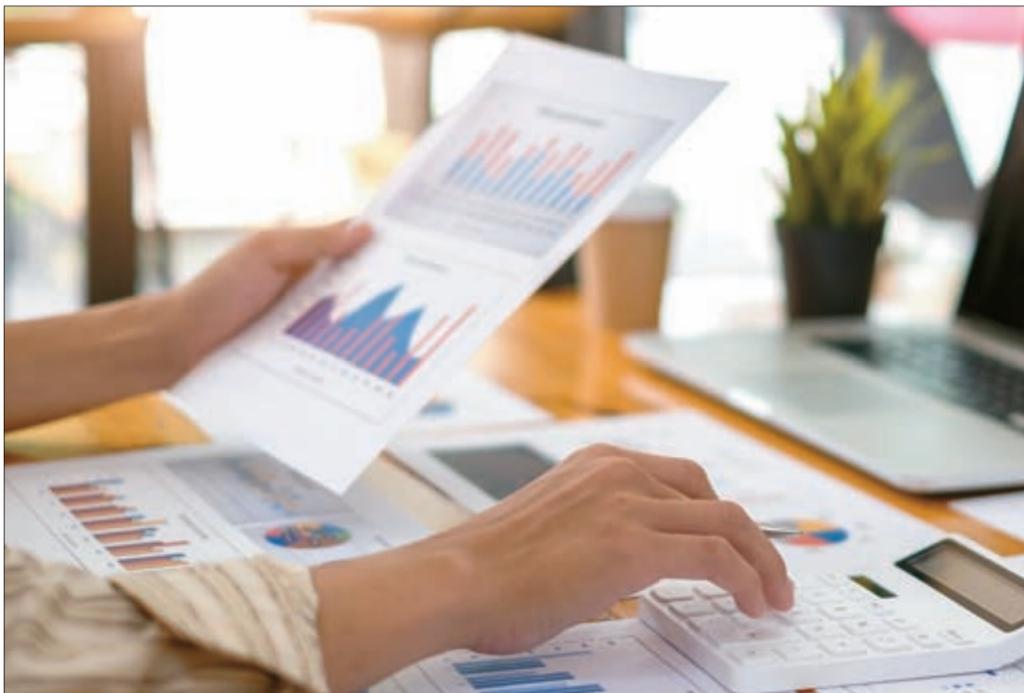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보수 성향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

버퍼형 연금과 지수형 연금

장기적인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는 투자자의 상황과 목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손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특히 더 관심을 받는 '버퍼형' 투자성 연금과 지수형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자의 상황과 목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표가 좋게 나온다. S&P500 기준으로 버퍼형이 9.43%, 지수형이 8.88%였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각각 11.13%, 8.59%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를 사용할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났다. 이 기간 하이테크가 약진한 것이 주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을 보면 지수형 연금이 더 좋았다. S&P500 기준으로 지수형이 6.88%, 버퍼형이 5.46%를 기록했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6.65% 대 3.18%로 지수형 연금이 버퍼형을 크게 앞섰다.

이 시기는 23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하락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경우 비록 방어벽이 있었지만 15% 이상은 물론, 50% 이상 하락한 경험이 두 차례 있었다. 그중 나스닥은 이들 하락장에서 특히 타격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통적 리스크 관리

투자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통적 방식은 분산이다. 버퍼형 투자성 연금이나 지수형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실은 분산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온전히 시장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주식형 자산 이외의 다른 유형의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그만큼 지수형 연금이나 버퍼형 투자성 연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들 자산에 배치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는 뜻이다.

반면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방어벽을 정할 수 있다. 이 방어벽 수준을 정한 만큼만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어벽을 10%로 정할 경우 10% 미만 하락에 대해선 손실이 없다. 하지만 선택한 지수가 그 이상인 15%가 빠질 경우 방어벽 이상 내려간 5%는 투자자가 손실을 떠

수 있다. 양자는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 대신 수익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데,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수익 상한선이 대체적으로 조금 높다.

▶비교

이들의 성적표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각자가 활용하는 지수가 다를 수 있고, 이들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

S&P500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수형 연금과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성적표를 보면 양자가 모두 8%선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버퍼형의 수익 상한선은 12.75%였고, 지수형 연금의 수익 상한선은 12%를 적용한 경우다. 지수형 연금의 이런 수익 상한선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리스크 수용 의사와 능력

결국은 다시 각자의 처한 환경과 투자목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상승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부분적 손실 방어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하락장을 경험하면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불필요한 리스크 수용이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 기간, 시장환경, 리스크 수용의 사나 능력에 따라 버퍼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

버퍼형에는 지수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될 때 수익을 락(lock)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휘보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수 옵션들도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시장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방어벽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리스크 및 수익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지수형 연금은 특별히 더 방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능동적 관

켄 최아메리츠 에셋 대표

상승장에서는 부분 손실 방어하는 버퍼형 유리 큰 폭 하락장 경험하면 지수형이 더 좋은 결과 개인별 리스크 수용 의사와 능력 따라 선택해야

▶지수형 연금과 버퍼형 투자성 연금 특징과 차이

양자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지수형 연금은 수익을 특정 시장지수와 연계해 발생시킨다. 이 점은 버퍼형 투자성 연금도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 정도일 것이다. 지수형 연금은 시장 하락에 따른 최대 손실 폭이 제로다. 해당 지수가 내려가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안는 식이다.

결국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말 그대로 투자자산이다. 지수형 연금은 시장 지수와 연계해 수익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자 상품이다.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대신 지수형 연금에 비해 수익 포텐셜이 높을

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의 성적을 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각각의 수익 상한선이다. 지수형 연금의 경우 손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신 수익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상한선이 낮다고 성적이 항상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수형 연금의 지난 10년간의 실제 수익 상한선을 대입하면 버퍼형의 수익률이 현저히 좋게 나올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양자의 성적 추이에 대해 좀 더 유익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대세 상승장세가 지속된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확실히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성적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도장	창고
식당 달은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려는 분, 5000-8000
식당 달은 자리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잇마쉬 MD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버지니아헨튼
식당 달은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사무실	상가
식당 달은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 부근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달은 자리 7800 SF, 임대, VA 에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백
식당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VA 맥클린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 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외국 증시

일본·인도 증시 등 지역별 분산 투자 고려 ETF 투자, 위험도 낮추고 분석 시간 절약

투자자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한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어 투자를 하는 시간적 분산도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지만 업종과 시가총액(대, 중, 소형주) 등으로 나누는 것이 분산 투자의 주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분산투자는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를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비중을 나누는 방법이다. 지역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경제 전망이 어두운 유럽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2023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20빌리언 달러나 매수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일본 증시나 증권가의 명망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 더블라인 캐피탈(Doubleline Capital)의 제프리 건들락(Jeffrey Gundlach)이 유망한 투자처로 지적인 인도 증시는 투자자들이 지역별 분산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해 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일본이나 인도 주식에 투자를 하려해도 투자자는 미국 주식 투자 할 때와는 다른 장애물에 봉착한다. 첫째는 아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몇 안되는 세계적인 대형 기업들을 제외하면 회사명만 가지고는 뭘 하는 회사인지도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워렌버핏이 투자한 5대 상사들 중에서도 생소한 이름들이 있다. 인도 주식은 더 심하다. 들어서 알 만한 회사도 없고 일본 회사들처럼 상품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인도 시가총액 2위 기업인 타타그룹의 타타모터스가 영국 고급차 랜드로버의 주인이라는 것도 조사 전에는 알지 못했을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중국, 러시아와 미국간의 원할치 못한 사이가 인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투자처로는 좋은 대

상인데 해당 지역의 증시나 개별 주식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 그쪽 지역의 ETF(Exchange Traded Fund)를 찾아보는 것이 위험도도 낮추고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도 있다. 만약 투자자가 위험도가 높다해도 ETF보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거매소(상장되지 않은 OTC(Over the Counter·장외거래)로 외국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거래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종목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주식시장으로의 분산 투자도 고려해 볼 때라고 본다.



신인 저축 계획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자동공제 기능은 자금을 천천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01(k)은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해 다양한 계 투자할 수 있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 타깃 데이트드 펀드 등 다양한 자산 유형에 투자할 수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1(k)은 연간 납입 한도 상한을 설정하여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3년의 불입 한도액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고,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7500달러로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401(k)을 통해 쌓은 자금은 은퇴 시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 정년 이후에도 적절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늘려가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401(k) 가입 근로자들에게 은퇴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401(k) 자금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파산이나 다른 금융적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산을 보호한다. 일부 401(k) 플랜은 대출이나 조기 인출 등의 유연성을 제공해 금전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정한 플랜의 룰에 따라 다룰 수 있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퇴직 후에도 자금 전환이 가능한 것도 이점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401(k) 자금을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전환해 퇴직 전 후에도 자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

401(k)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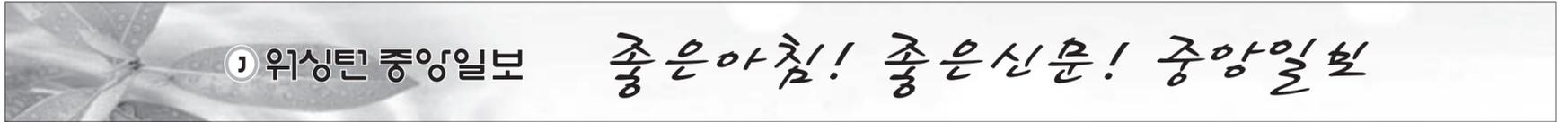
납입 금액·투자 수익 세금 공제로 절세 효과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옵션으로 리스크 분산

401(k)은 미국의 은퇴연금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들이 은퇴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퇴계좌이다. 주로 사업체에서 제공되며, 직원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401(k) 계좌에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 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여든가 가입해야 한다. 오늘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입할 경우 가질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01(k)은 세계 혜택이 풍부한 투자 수단이다. 많은 경우, 401(k)로 납입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어 현재 내야 하는 세금의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투자 수익 역시 세금을 내지 않고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성장 기회를 가져다준다. 많은 회사가 401(k)에 대해 매칭을 제공한다. 이는 근로자가 401(k)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납입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매칭금액에 대해서도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매칭할 경우라면 반드시 플랜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다. 401(k) 플랜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

신의 저축 계획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자동공제 기능은 자금을 천천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01(k)은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해 다양한 계 투자할 수 있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 타깃 데이트드 펀드 등 다양한 자산 유형에 투자할 수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1(k)은 연간 납입 한도 상한을 설정하여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3년의 불입 한도액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고,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7500달러로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401(k)을 통해 쌓은 자금은 은퇴 시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 정년 이후에도 적절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늘려가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401(k) 가입 근로자들에게 은퇴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401(k) 자금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파산이나 다른 금융적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산을 보호한다. 일부 401(k) 플랜은 대출이나 조기 인출 등의 유연성을 제공해 금전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정한 플랜의 룰에 따라 다룰 수 있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퇴직 후에도 자금 전환이 가능한 것도 이점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401(k) 자금을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전환해 퇴직 전 후에도 자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Bowie	Columbia	Millersville	Perry Hall	Ellicott City
싱글홈	타운홈, 방3, 화2.5	\$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	싱글홈, 방3, 화2.5	싱글홈, 랜쳐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
COMING SOON	UNDER CONTRACT	UNDER CONTRACT	UNDER CONTRACT	COMING SOON
Cockeysville	Hanover	Odenton	Frederick	Cockeysville
싱글홈, 방4, 화2.5, 내부 수리중	\$49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	\$489,000 싱글홈, 방3, 화2, 즉시입주 가능	\$386,000 타운홈, 방3, 화3	싱글홈, 방4, 화3, 내부수리중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COMING SOON	RENTED	RENTED	COMING SOON	RENTED
RENT	Elkridge	Baltimore	Germantown	Glen Burnie	Hanover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	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Odenton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잊히고 버려진 곳들의 별별 사연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트래비스 엘버러 지음
성소희 옮김
한겨레출판사

영국의 크리스탈팰리스, 우리말로 수정궁은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1851년 런던 세계만국박람회 전시장으로 지어졌다. 그 안의 전시품만 아니라, 철골 구조에 판유리를 입혀 화려하고 거대한 온실 같은 위용을 뽐낸 이 전시장 자체도 대단한 구경거리였던 모양이다.

알고 보니 박람회 이후 그냥 철거되진 않았다. 해체와 재조립을 거쳐 전역 지역으로 이전했고, 정원과 불거리를 갖춘 유원지로 문을 열었다. 가까운 기차역도 생겨났다. 크리스탈팰리스로 곧장 이어지는 지하도 역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일등석 기차 손님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한데 1936년 크리스탈팰리스가 화재로 사라졌다. 승객이 줄면서 기차역도 결국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대피소로도 쓰였던 지하도는 남아 있지만, 대중의 접근은 막혀 있다. 이 책의 원제 (Atlas of Forgotten Places)에 담긴 표현처럼 '잊힌 장소'다.

이 책의 취향은 별나다. 멋지고 근사하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아니라 한때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는 곳을 비롯해 버려지고 잊힌 40 곳을 소개한다. 장소마다 흥망성쇠의 이유는 뚜렷하다. 그렇다고 하나로 꿰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맛보기로 열거하는 곳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케니컷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 구리 수요가 급증하자 철도



런던의 크리스탈팰리스 지하도. 일등석 기차 승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진 한겨레출판사]

가 연결되고 광산촌으로 북적였지만, 매장량이 고갈되자 남아있는 건물 그대로 폐허가 된 곳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몬트세랫은 비틀즈의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어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스타들을 불러 모았던 곳. 이를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자연. 최악의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와 산사태와 진흙이었다.

미국 사막 지역의 리조트 도시였던 솔턴은 더 복잡하다. 한때 관광객이 요세미티 국립공원보다 많았다는 이곳은 콜로라도 강의 범람 이후 인공적으로 물길을 바꿔 호수가 생기면서 번성하게 됐지만, 호수의 수위 변화와 오염으로 결국 "황폐한 지옥"이 됐다.

사실 모두 멋지고 근사했던 것도 아니다. 노선 확대에 인적 없이 '잊힌 장

소'가 된 뉴욕 시청역처럼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병원을 비롯해 장소 자체가 비극을 품은 곳도 많다. 특히 아이티의 상수시궁은 그 역사가 여러모로 처참하다. 식민 지배에 항거한 영웅이 독재자로 변모해 왕을 자처하며 궁전을 지은 데다, 건설 도중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나중에 지진으로 궁은 폐허가 됐고, 독재자는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책이다. 장소 자체도 그렇지만, 장소마다 그 유래와 역사적 맥락을 잘 짚어내는 서술 덕분이다. 태국의 쇼핑몰이 물고기를 풀어놓게 된 사연은 쇼핑몰 개념의 원조가 된 미국 건축가 얘기를, 소금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 유유키의 기차 무덤은

초석이란 자원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전쟁 얘기를,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뉘르스하임이 잊힌 이유는 히틀러의 혈통 감추기 얘기를 불러낸다. 저자는 장소마다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며 대중 문화사를 비롯해 세계사의 구석구석을 건드린다.

책 제목의 '인류의 흑역사'가 풍기는 인상과 달리, 지역 개발 혹은 재생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 시설이나 한때 '일본의 하와이'로 홍보된 섬의 호텔이 처한 상황, 잊히고 버려진 곳에 다시 만들어진 관광지나 기념관, 축제 개최 등으로 장소를 되살리려던 시도가 끝내 물거품이 된 곳 등이 각기 다른 영감과 생각 거리를 준다. 장소의 운명이란,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세월의 시험"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 같다. 이화남 기자

1300쪽에 되살린 뜨겁고 빛나는 그



범도 12
방현석 지음
문학동네

한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대하소설의 향취가 느껴지는 장편소설이다. 1·2권을 합치면, 얇아지는 요즘 장편소설 너댓 권 분량(1300쪽)인 데다, 파란만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흥범도(1868~1943)의 일대기를 상세하게 그려내서다.

흥범도는 한국인이자 모르기 어려운 이름이다. 김좌진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잘 모른다. 그는 독립군이기 전에 호랑이를 잡는 포수였다. 한때 승려였고, 비구니와 함께 환속해 가정을 꾸렸다. 소설에 따르면, 조선 총독을 지낸 일본의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됐을 정도로 거물이었지만, 말년은 지극히 초라했다. 스탈린의 고려인 이주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돼 극장 수위를 전전하다 생을 마감했다. 2021년 그의 유해 봉환을 전후해 그를 재조명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된 건 그래서일 것이다. 풍운아 같은 그의 이력 자체가 글쓰기를 부르는 것이다.

중간작가 방현석은 책에서 떨어진 중장년 남성들을 한껏 겨냥한 모양새다. 사람이 있고, 무협지를 연상시키는 싸움과 전투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사나이들의 결탁과 배반, 대의명분과 민심의 괴리를 다룬다. 갑오개혁, 군대해산 등 시대 배경도 빼놓지 않지만 대체로 흥범도 개인의 행적에 치중해 밋밋해질 수 있는 구도인데도, 읽다 보면 뜨거워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1921년 자유시 참변 같은, 흥범도의 행적과 관련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대목을 다루지 않은 것은 결국 서사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관련 자료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청산리 전투 이후 20여 년이 소설에서는 공백인 것이다. 미지근한 생의 후반을 생략한, 뜨거웠던 흥범도, 빛나는 흥범도 이야기다.

에필로그에, 각색 없는 흥범도의 민낯이 나온다. 극작가 태정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무대에 올리자 흥범도가 했다는 말이다.

"너무 추네, 너무 추어올라..."
과장해 칭찬했다는 뜻이다. 흥범도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느낌이다.

신준봉 기자

책꽂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안도현 시, 이동근 그림, 상·상)=시인은 왜 동시를 쓸까. 시인은 이번 동시집이 세 돌 외손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보다는 나이 들어야 감상할 수 있는 시들이다. '11월' 같은 시가 좋다. "아빠는 해가 노루 꼬리만큼 짧아졌다고 했다// 엄마는 알벤 사마귀 통통한 배를 보고 (...), 사람은 자연을 보고 계절을 안다.



한류를 이해하는 33가지 코드 (박소희 지음, 지성사)= '다민족의 샐러드볼' 뉴욕에서 1년간 영화만 보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저자는 세계의 문화 중심에서 한류 신드롬이 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한류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결국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다름 아니다. 비빔밥 정신, 빨리빨리 문화, 눈치의 달인들 같은 것들이 한류 코드.



검재 정선의 그림 선생 (이성현 지음, 들녘)=검재는 삼연 김창홍의 금강산 여행에 동행하며 '신묘년풍악도첩'을 그렸다. 여행에 천거해 준 이는 사천 이병연. 검재의 진경산수화는 대개 그의 제화사와 함께한다. 미술학 박사이자 화가인 저자가 이들의 관계를 기존의 시각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검재의 금강산 그림들을 분석한다.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김민철 지음, 창비)=고대부터 근대까지 서구 사상가들은 민주정을 최악의 정부형태로 꼽았다고 한다.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이자 유럽 지성사를 연구해온 저자가 민주주의가 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고, 어떤 계기로 인정받기 시작했는지를 서구의 사상적 흐름, 여러 핵심적인 개념과 함께 설명한다.

한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펜션과
상당환영

“격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대장금’(왼쪽)과 ‘궁’이 돌아온다. MBC 드라마 ‘대장금’ 종영 20년 만에 이영애가 다시 의녀가 된 이후의 모습을 연기한다. 드라마 ‘궁’은 18년 만에 리메이크된다. 흥행 원작의 재활용은 OTT 시대 대세가 됐다.

[사진 MBC]

‘수사반장’이 돌아온다, 젊은 최불암은 이제훈

‘수사반장’ ‘대장금’ ‘궁’ 등 예전의 인기 드라마들이 새 단장을 하고 돌아온다. 차별화된 포맷과 스토리 원작에 향수를 느끼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시청층까지 끌어들이는 포부다. 가장 먼저 컴백하는 드라마는 ‘수사반장’이다. 드라마를 이끄는 ‘한국의 콜롬보’ 박영한 형사의 얼굴이 바뀐다. 1971~1989년 방영한 MBC ‘수사반장’에선 최불암이 박영한을 연기했는데, 오는 4월 방영하는 MBC ‘수사반장 1958’에선 이제훈이 나선다.

레전드 드라마들의 귀환
프리퀄 ‘수사반장 1958’ 4월 방송
1회엔 원조 주인공 최불암 특별출연
‘의녀 대장금’ ‘궁’도 다시 제작 나서
“OTT 시대, 알짜 콘텐츠 재조명”

그는 최불암이 특별 출연하는 1화를 주의 깊게 봐줄 것을 당부했다. 아날로그 수사의 낭만과 유쾌함을 보여줄 레트로 범죄수사극을 만든다는 포부다. MBC 홍석우 CP(책임프로듀서)는 “원작이 가진 세계관과 캐릭터 등 핵심적인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변화한 시청자 가치관과 니즈에 맞춰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애는 ‘의녀 대장금(가제)’으로 돌아온다. MBC ‘대장금’ 종영 20년 만에 다시 장금이 될 이영애는 의녀가 된 이후의 모습을 연기한다. 올 10월 첫 촬영에 들어가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한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는 ‘대장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녀 대장금’ 제작사 판타지오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전 작품들을 새롭게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대장금’을 모니터링하다가 그 후 이야기를 새로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준비하게 됐다.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할 수도 있지만, 장금이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이영애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범업은 그에 대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옛드’(옛날 드라마)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건,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는 유튜브 옛드 전용 채널에서 ‘상도’ ‘오로라 공주’ ‘사랑과 야망’ 등 기존 드라마를 회차 별로 공개하고 있다.



■ 4월 방영하는 ‘수사반장 1958’은 이제훈이 박영한 형사 역할을 맡았다.
■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는 김용건·김수미 등 ‘전원일기’ 출연진이 나온다.

[사진 MBC·tvN STORY]

MBC가 최근 공개한 ‘수사반장 1958’ 포스터에는 원조 박영한 역의 최불암과 젊은 시절 박영한을 연기할 이제훈이 각각 흑백과 컬러로 담겼다. 드라마 내용은 1958년을 배경으로 청년 박영한이 반장이 되기 전, 동료 3인방과 함께 부패한 권력을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수사반장’의 프리퀄(prequel)인 셈이다. ‘수사반장 1958’ 연출은 영화 ‘공조’ ‘창궐’을 만든 김성훈 감독이 맡았다.

캐릭터와 배우는 같지만, ‘대장금’과 ‘의녀 대장금’은 별개의 드라마다. 원작의 연속성을 버리고 주요 골격만 차용해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reboot) 형태다. ‘대장금’을 집필한 김영현 작가 측도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작가의 소속사 KPI 장진욱 대표는 “주요 캐릭터들의 설정,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 사건 전개 및 에피소드 등은 원저작자인 김 작가가

2006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궁’은 리메이크된다.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27%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고, 스킵오프 ‘궁S’(2007)도 만들어진 인기 IP(지적재산권) 콘텐츠다. 이번 리메이크는 박소희 작가의 원작만을 버리고 주요 골격만 차용하고 있는 재담미디어와 드라마제작사 그룹에이트가 함께 한다.

다시보기 붐이 일었던 ‘전원일기’는 예능으로 재탄생했다. 2022년부터 방영 중인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은 김용건·김수미·이계인을 중심으로 ‘전원일기’ 출연진이 모인 농촌 예능이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새로운 작품을 계속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역시 IP확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궁’의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옛날 드라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취향대로 시청을 하는 OTT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SKY 캐슬’ ‘별에서 온 그대’ 등을 제작한 HB엔터테인먼트의 홍일한 이사는 “결국 제작사들이 지향하는 것은 재미 있는 이야기의 전달이다. 좋은 IP를 찾아 현 시대에 맞는 화법으로 구현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무소유 외치더니 ‘풀소유’…헤민스님, 자숙 3년 만에 방송 복귀

이른바 풀소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헤민스님(사진)이 방송에 복귀했다. 불교닷컴에 따르면, 헤민스님은 오는 3월 3일 첫 방송하는 BTN불교TV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헤민입니다’에 출연했다. 그의 방송 복귀는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삶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되새겨 보는 시간. 헤민스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잊어버리 쉬운 평화와 여유를 찾는다’고 소개했다.



헤민스님은 2020년 11월 tvN ‘온앤오프’에서 남산이 보이는 호화 자택을 공개하고 비싼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으로 대중적인

기를 얻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강의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 아파트를 85.7㎡ 넓이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약 61만 달러(약 8억1435만 원)에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히고 대의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헤민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참회한다”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

이후 헤민스님은 2022년 5월 법보신문에 ‘힘내라 우크라이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에서 구호단체와 함께 난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는 근황을 전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조계사 앞에서 진행되는 배식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사내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틀러 지역]

“몸 상태 아무 문제 없다” 개막전 선발 예열하는 류현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12년 만에 KBO리그 한화 이글스로 돌아왔다. 한화 구단은 지난달 22일 류현진과 8년 총액 170억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도, 총액도 모두 KBO리그 역대 최대 규모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계약이 끝났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그는 빅 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 사이에서 고민하다 한화에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7년)와 토론토(4년)에서 11년간 뛰면서 빅 리그 통산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 탈삼진 934개의 성적을 남겼다.

한화를 향한 류현진의 애정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 FA가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한화로 기울어져 있었다. ‘늦어도 2025시즌 전에는 무조건 돌아온다’는 의지도 확고했다. 이유는 하나다. “내게 힘이 남아 있을 때 한화에 돌아와야 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MLB에서의 다년 계약은 선택지에 없었다. FA 협상 전 에이전트에게 “2년 계약이나 1+1년 계약은 하지 않겠다. 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22년 6월 30대 중반의 나이에 두 번째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았는데, “MLB에서 몇 년 더 뛰려는 게 아니라 한화에 돌아왔을 때 잘 던지고 싶어서 수술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류현진은 거취를 고민하면서 일본 히로시마 카프에서 은퇴한 구로다 히로키를 언급했다. 구로다는 1997년부터 11년간 히로시마의 에이스로 활약하다 2008년 MLB에 진출해 LA 다저스(4년)와 뉴욕 양키스(3년)에서 뛰었다. 2014 시즌을 끝으로 FA가 된 그에게 친정팀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이 거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39세가 된 구로다는 히로시마로 돌아와 팀을 2016년 25년 만의 센트럴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은퇴했다. 류현진 역시 “구로다처럼 내 힘으로 한화의 우승을 이끄는 게 오랜 꿈이었다”며 “힘

일본 스프링캠프서 불펜 피칭 한창
류 “힘 남아 있을 때 돌아와 내 역할”
후배들 향해 “내 방문 항상 열려 있다”

한화, 23일 LG와 개막전 맞붙기 계획
최원호 감독 “웃음이 절로 난다”



류현진이 지난 2월 26일 일본 오키나와 고천다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베이스캠프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

- 소속팀**
 - 한화 이글스(2006~2012년)
 - LA 다저스(2013~2019년)
 - 토론토 블루제이스(2020~2023년)
- 계약조건**
 - 한화 이글스(2024~)
 - 2024~31/총액 170억원
-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
 - 78승 48패 1세이브
 - 평균자책점 3.27
 - 탈삼진 934개

이 다 떨어지지 채로 돌아와 한화팬들앞에 다시 서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한화의 전력에 보탬이 될 때 오고 싶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했다. 류현진이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는다는 소식은 삼시간에 10개 구단 스프링캠프를 뜨겁게 달궜다. 감독들은 한화를 향한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당장 지난해 통합 우승팀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은 “류현진이 돌아왔으니 야구는 더 재밌어지고, 감독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일단 올해 구단 최다승 경선은 포기했다. 올 시즌 목표 승수도 84승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LG는 지난해 86승 2무 56패(승률 0.606)의 성적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염 감독은 “류현진은 충분히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투수다. 그 한 명이 가세하면서 한화는 국내에서 2위 안에 드는 1~4선발진을 보유하게 됐다”며 “올 시즌엔 5강을 차지하려는 중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순위 경쟁 팀이 늘어나면, 모든 팀의 승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많은 감독들은 류현진이 한화에 미칠 무형의 선순환에도 주목했다. 한화에서 류현진과 함께 뛰었던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은 “류현진이라는 선수 한 명을 경계한다기보다 한화가 강해지는 걸 경계하고 있다. 젊은 선수가 많은 한화에 류현진이 합류해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한화의 국내 선발 문동주가 공이 좋아도 어린 투수인데, 류현진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류현진의 복귀는 리그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류현진이 돌아온 한화 캠프는 활기가 넘쳐흘렀다. 한화 선수들은 입을 모아 “현진이 형이 돌아오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환호했다. 류현진이 계약 다음날인 2월 23일 양복 차림으로 오키나와 캠프에 도착하자 베테랑 선수들이 가장 먼저 다가와 반

기기도 했다. 류현진은 “12년 만에 다시 왔다. 선수들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다 같이 잘해보자”고 인사했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류현진은 “다들 너무 반갑게 맞아줘서 좋았다.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공을 던지면서 개막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류현진은 다른 선수들보다 캠프에 늦게 합류했는데도 두 차례 불펜 피칭을 완벽하게 마쳐 주변의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피칭을 마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활짝 웃었고, 공을 받은 동기생 포수 이재원도 연신 “나이스!”를 외쳤다.

최원호한화 감독은 “내가 인상 쓸 일이 없다. 웃음이 절로 난다. 앞으로 경기에서 던질 모습을 상상하니 더 좋다”고 싱글벙글 웃었다. 순환한화 단장도 “불펜 피칭을 지켜보니 ‘역시 대단한 투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며 “시즌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다. 류현진이 던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류현진은 아직 자신을 어려워하는 후배들을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한 한식당에서 한화 투수 전원에게 한턱 냈다. 류현진은 “후배들이 먼저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 사줄 거다”고 했다. 류현진과 절친한 사이인 장민재는 “그동안 후배들이 현진이 형을 궁금해 하면 ‘무서운 사람 아니니 직접 가서 물어보면 잘 말해 줄 거다’고 말하곤 했다”며 “형 덕분이다 같이 모여서 서로 거리도 좁히고, 그동안 못한 얘기도 나누는 자리가 됐다”고 했다.

한화는 류현진에게 오는 23일 LG 트윈스와의 시즌 개막전 선발을 맡길 계획이다. 류현진도 “몸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1일로 예정됐던 첫 라이브 피칭이 비로 순연되면서 처음으로 준비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는 밝은 표정으로 “캔슬(cancel)! 캔슬!”을 외치며 훈련장을 떠났다. 익숙한 친정팀에서 말 통하는 동료들과 편안한 캠프를 치르고 있는 류현진. 돌아온 에이스의 시즌 준비는 순조롭다.

오키나와=배영은 기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갈을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리 부동산인가? 왜 막착같은 부동산인가?

-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리입니다.
-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 스모크디텍터 설치
-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버지니아 / 703-663-0321 |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 매릴랜드 / 301-399-0140 |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 D.C. / 301-399-0140 | 13001 1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영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잇뽕' 김두한, 18세에 우미관 무대로 일본인 주먹 평정

(일본어로 '한 방')

사람의 역사는 늘 그 궤도를 따라 펼쳐져 왔는지 모른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한 그 내용 말이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그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건 자만이 주인이 된다”고 말한다. 시인 김남주는 한 술 더 뜬다. ‘종과 주인’이란 시에서 그는 “낫 놓고 기지도 모른다고 주인이 같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라며 역시 변증의 논리를 꺼내든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프랑스대혁명의 서슬 퍼렇던 낫은 끝내 단두대의 피비린내로 얼룩진다. 권력이라는 야만의 총은 명예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인과 노예의 삶을 강제한다. 500년을 이어 온 봉건 조선의 학정은 수많은 질서에 그저 말없이 따르는 순응자들을 만들었다.

우리를 제국의 식민 나라로 몰아넣은 유교 원리주의 조선왕조의 매국은 급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떠나는 결과를 빚었다. 동북아는 그로써 세계열강의 다툼 현장으로 변했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여전하다. 당시 조선인들은 동학 노래 ‘새야 새야’에 맞춰 “소련 놈에 속지 말고 미국 놈을 믿지 마라. 일본 놈이 일어서니 조선사람 조심해라”라고 노래했다.

3·6대 국회의원, 국회 오물투척 주역

이렇게 친(親)과 반(反), 그리고 사대(事大)와 자주(自主), 애국과 매국의 이분법적 갈등에서 정반합(正反合)의 변법자강(變法自強)이 송두리째 뺏겼다.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좌우익을 빙자한 기회주의가 발호하며 ‘민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또 다른 주인과 노예의 역사가 펼쳐진다.

작두날 위에 선 무당의 칼날 같은 살벌한 시절을 산 김두한(金斗漢)이라는 사내가 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는 그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대한청년당의 감찰부장, 제 3대와 6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오물투척사건을 일으킨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두한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의송(義松)·가송(嘉松). 별칭은 ‘잇뽕(잇뽕·一本), 즉 ‘한 방’이다. 주먹 한 방으로 세상을 평정한 조선의 사나이라는 의미 맥락에서다. 그의 출생지는 경성(당시 서울 호칭)부 종로 삼청동이다. 북두칠성의 두(斗), 그리고 놈이나 사나이를 지칭하는 한(漢)을 쓰니 그는 곧 ‘북두칠성의 사내’다. 그의 생부인 김좌진 장군이 지어준 이름이다.

김두한을 일제 강점기 조선 최고의 건달, 주먹 황제, 협객, 정치인으로 평한다. 옛 속담에 ‘돈 있으면 한량, 돈 없으면 건달’이라 했지만, 그의 삶은 인생 무대에 온몸으로 서는 광대(廣大)이자 풍류객이랄 수도 있었다. 칼과 낫, 총을 들던 시대 그는 주먹으로 전국을 평정하며 산 사내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와, 미(美) 군정 시기에는 군정과



1 1966년 한독당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됐던 김두한 의원이 출감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2 임권택 감독, 박상민 주연 <장군의 아들> 전단지. 3 김효천 감독, 이대근 주연 <협객 김두한> 포스터. [중앙포토], [사진 국립민속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맞섰고, 좌우의 대립 공간에서는 좌우익을 넘는 민족 반공투사로, 그리고 독재에 맞서 민주투사로 살았다. 주인과 종이 폭력적으로 강제되는 역사의 한 복판, 웃통 벗고 대낮에 절대 권력에 맞서 혈기 넘치는 북두칠성의 사내로 거침없는 투쟁의 역사를 살다 갔다. 비록 거대한 군부 권력의 고문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우리는 의협(義俠)이라 불려도 좋을 이 김두한이라는 사내의 역사를 통해 오늘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묻는다.

김두한의 식민지 시대-해방기의 활약을 다룬 전기 영화 <실록 김두한>, <협객 김두한>, <김두한(속 3부)>, <김두한(속 4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영화 속 민족의 협객으로서 김두한이 강조하는 ‘의리’는 식민지 시대 지식인 엘리트의 궤절에 대조되는 ‘조국에 대한 의리’ 즉 항일의 의미를 지녔다. 해방기에 의리는 좌익, 기회주의자, 협잡꾼들의 논리를 이기는 ‘질서, 법’ 나아가 ‘반공’의 가치를 의미했다. 김두한은 의리로 식민지로부터 해방기를 가로지르는 근대사회의 정통성을 구현해 냈다. 영화 김두한 시리즈는 반외세에 대한 정서를 분명히 한 국수주의에 가까운 이념을 선보였다. 논리보다 주먹,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김두한 시리즈는 피의 수사학, 반 지식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반 지식주의와 유신의 반 영웅으로 대중들의 보수적 정서를 자극하는 유신시대의 반 신

화로서 존재했다. <송호정, 우리어문연구 62권>

김두한은 주인과 종의 권력투쟁이라는 칼날 위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운 해방의 삶을 산 건달(乾達)이다. 건은 乾(하늘)이요 달은 達(통달)이다. 건달은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니 원래 말 간 다르바(Gandharva)가 그렇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적 존재인 간다르바는 음악을 사랑하며 향기를 먹고 사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불법(佛法)의 도를 향해 지나는 길목에 건달이 있다. 사천왕(四天王)을 통해 건달을 본다. 용(龍)과 여의주(如意珠), 비파(琵琶)를 들고 칼을 품은 채 온갖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악을 짓밟고 있으니 악의 무리를 제압하는 건달은 곧 의인이다.

종로는 천하의 중심이요 사천왕들이 모인 현실거리이다. 사통팔달(四通八達)의 한양 거리 곳곳에 조선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대문을 세우고, 그 복판에 보신각(普信閣)을 만들었다. 그 믿음의 신(信)으로 종을 만들어 오행(五行)이 서로 맞물리는 수도 한성을 만들었다. 돌고 도는 세상 속, 복판의 로터리였던 종로는 서울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조선 궁궐을 관통하는 길을 만들고, 청계천 이남 남촌에 황금정(黃金町·을지로), 본정(本町·충무로), 명치정(明治町·명동)에 5만 명 규모 일본인 거주 신도심을 건설했다.

작(昨 어제) 오후 12시경에 부내 종로서에서는 부내 우미관 앞과 탑골 공원 앞에서 폭력단의 혐의자 이만근 이하 20명을 일제히 검속하였다. 금 31일에도 그들을 엄중히 취조중인데 그들은 우미관과 탑골공원 등을 근거지로 하여 여러 가지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다(동아일보 1934. 06. 01)

일본 주먹 하야시, 본명은 선우영빈

우미관은 1910년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다. 1910년 일본인에 의해 ‘고등연예관’으로, 1915년 우미관으로 개칭했다. 대사를 소리로 전할 수 없어 번사(辯士)가 해설을 맡는 무성(無聲)영화 방식이었다. 1928년에 와서야 최초로 유성(有聲)영화를 상영한 후 우미관은 1945년 해방 때까지 단성사, 조선극장과 함께 도심의 주요 개봉 극장이었다. 조선 제일의 주먹이었던 김두한은 이 우미관을 거점으로 종로 지역에서 활약했다.

김두한은 약관 18세에 종로 우미관의 주먹 건달 왕으로 등극한다. 김두한의 싸움 실력은 아주 두드러졌다. 일반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빨랐다. 게다가 빼어나게 정확했다. 특히, 여러 명과 싸울 때 옆 사람의 어깨를 짚고 발차기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면서 ‘한 방’이라는 ‘잇뽕’으로 이름을 날렸다.

종로의 우미관 극장 주인은 ‘와카사키’란 일본인이었다. 극장의 질서를 잡는 ‘기도’겸 운영의 뒤를 봐주던 복싱 선수 출신 김기환에 이어 일본인 서커스단에서 칼로 모기를 부리던 미포리오가 온다. 미포리오는 성격이 포악해 여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김두한은 이때 결투 신청을 하여 한 주먹에 미포리오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종로를 제패한 구마적과 신마적을 차례로 제압하며 비로소 김두한은 우미관을 중심으로 전국구에 버금가는 조직을 이룬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본정3정목(현 충무로 3가)에는 하야시라는 일본 주먹들의 두목이 있었다. 하야시는 일찍이 참서개명한 조선인으로 어려서부터 일본에 넘어가 도호야마 미쓰루(頭山滿)의 수하가 된다. 도호야마는 무사 집안에서 태어나 야쿠자들을 양성하며 대륙침략의 야심을 가졌고, 손문과 김옥균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도 했다. 하야시는 이런 일본 거물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의 종로·명동·충무로를 접수했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돈을 거둬 ‘조직’을 세웠다.

하야시는 선우영빈이 본명이었다. 두 조선인의 만남은 이른바 김두한의 복춘 패와 선우영빈의 남촌 패 사이에서 벌어지는 숙명적 대결이었지만 수표교 싸움 이후 둘은 형님과 아우를 이룬다.

(계속)
김태균 문화평론가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후회**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 풀/파트타임 가능
- ▶ 영어 가능하신 분
-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4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령: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 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가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셔니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사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410-480-5234/ 지역: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 하실분
Catonsville/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 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종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골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후,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매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 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Cafe June 에서 풀/파트타임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험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시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첼트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 PG 카운티에 위치
-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중앙일보**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탈(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 (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티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분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세일즈(Marketer)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발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발당청소하실분 파티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 을 모집합니다. 고경력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입주 가능 ▶703-477-3114

우드브릿지타운홈 \$2,500 방3, 화장2,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욕아웃 베이스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장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타운홈H마트 앞, 월 \$3,400 방3, 화장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장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장,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장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장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3 차고. 페어레이크소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2, 반화장실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무, 비흡연자 703-400-4520

애난데일 싱글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방+거실+키친+Full Bath, 주차 703-606-0700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무,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롬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무,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무,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 (임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2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설악각분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 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 포함 301-520-2916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 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4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 1, 화 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데지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 2, 화장실 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 3, 화장실 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 1, 화장실 1. 962s.f. Many Upgrades,
New Appliances, New HV/AC.
Tyson's Corner 가 가까움.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부동산/상업용 매매〉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 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언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 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 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피스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벨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만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벌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리)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운
살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 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500-0035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코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
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사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항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B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되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원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 1(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의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ack: Hi Chris how are you?
 잭: 크리스 어떻게 지내?
 Chris: Oh so-so.
 크리스: 어 그제 그래.
 Jack: What's the matter?
 잭: 무슨 일이야?
 Chris: Business is not so good.
 크리스: 사업이 좀 부진해.
 Jack: Really? Your restaurant is losing money?

잭: 정말? 자네 식당이 돈을 못벌고 있는 거야?
 Chris: Yes. I'm going nowhere fast.
 크리스: 응. 별 성과가 없어.
 Jack: The restaurant business is tough.
 잭: 요식업이라는게 힘들어.
 Chris: I'm finding that out.
 크리스: 나도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Jack: What are you going to do?
 잭: 그럼 어떻게 할 거야?

(one) is going nowhere fast ; 별 성과가 없습니다

(Jack is talking to his friend Chris...)

(잭이 친구 크리스와 얘기한다...)

Chris: If things don't pick up I'll have to close.
 크리스: 좀 나아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뭐.

Jim: "The new secretary makes so many mistakes."
 (새로 온 비서는 실수가 많아.)

Roger: "I'm finding that out."
 (나도 그걸 알아가는 중이야.)

기억할만한 표현

- ▶ (something) is tough: ~가 힘들다 어렵다
 "That English test was tough."
 (그 영어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 ▶ (one) is finding that out: (어려운 현실 별로 좋지 않은 정보 등을) 알아가는 중이다

- ▶ if things don't pick up: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If business doesn't pick up soon I'll have to fire some employees."
 (사업이 곧 나아지지 않으면 직원을 몇 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아버지의 누이 (3)두 손을 배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하는 인사 (5)도로나 교통망, 통신망 따위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7)조선 시대에, 지방의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9)임금에게 올리는 밥 (10)밭로 하는 배구 (11)나뭇가지가 갈라진 부분. 송순이 많이 달린 앵초나무의 ~를 꺾어서 안고 왔다 (13)쓸데없는 걱정. 중국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죠 (15)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17)물이나 술을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21)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동물 표본 (23)어린이에게 등에 업히라고 할 때, ~ 하죠 (25)예전에 사용하던, 낱쇠로 만든 돈. 가운데에 구멍이 있으며, 나뭇잎을 닮았다 하여 ~이라 부르죠 (26)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28)등잔, 초에서 불을 붙이는 부분 (29)언 발에 오줌(뇨) 누기.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 (30)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는 셈. 어렵짐작으로 대충 하는 계산 (31)밤에 다니는 배에 뱃길, 위험한 곳 따위를 불을 밝혀 알려 준다

세로열쇠

(1)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서 시끄럽게 함 (2)머리의 뒷부분. 그는 무안할 때면 ~를 긁는 버릇이 있다 (3)물품, 음식 따위를 날라다 줌 (4)두 다리의 사이. 살. ~를 굽다(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다) (6)실, 형질, 종이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 (8)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명명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12)돌아오는 길 (14)모든 천체를 포함하는 공간 (16)손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수련을 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 수벽치기 (18)굽는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바닷물고기 (19)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20)한 척의 조그마한 배. 그는 망망대해의 ~ 같은 고독을 느꼈다. 일코 (22)유혹가를 전전하며 돈 많은 여성에게 붙어사는 젊은 남자 (24)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슬래잡기를 하다가 ~를 치는 바람에 널어놓은 빨래가 다 떨어졌다 (27)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생체의 구성 성분. 물에 잘 녹지 않죠 (29)동네 어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나무에도 들판에도 ~ 밖에도(서럭송)

스도쿠

6	1		9			3		
		4		6				2
		5	2	4		7	8	
	4		6			9	5	
1	8				5		2	
	2				4			
4			3	2				1
9	3				8		6	
	5			7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3	8	9	7	4	1	5	2
4	9	2	8	5	1	7	3	6
1	7	5	6	2	3	8	9	4
7	1	9	4	3	8	6	2	5
3	2	4	5	9	7	1	8	6
8	5	9	2	1	6	3	4	7
9	8	7	1	4	2	5	6	3
2	6	1	3	9	5	4	7	8
5	4	3	7	8	6	2	1	9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